

회원들이 함께 만드는 간호 현장의 이야기

서울간호

www.seoulnurse.or.kr

2024. 12. WINTER

특별기고

나는 간호사 출신 검사조사관이다

지상강의

돌봄을 위한 상상과 연결

최신의료동향

기술과 의료를 잇다
: 의료 혁신 중심에서 기술과 간호의 융합 이야기





2024. 12. WINTER 서울특별시간호사회 www.seoulnurse.or.kr

발행인	서울특별시간호사회
편집위원장	회장 조윤수
편집위원	김윤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경자 ((주)피지랩, 두원공과대학)
	김남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숙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최인숙 (경희의료원)
	한세영 (서울대학교병원)
편집인	과장 이주연

서울간호 2024년 겨울호 통권 제44호

발행일	2024. 12.
발행처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서울 구로구 공원로 6가길 26
	T. 02-853-5497 F. 02-859-0146
	E-mail sna@seoulnurse.or.kr
	홈페이지 www.seoulnurse.or.kr

디자인 · 인쇄 홍진피앤피 T.02-2275-9875

>> CONTENTS

> Column	권두언	간호사, 세계관을 확장하다	_ 02
----------	-----	----------------	------

> Feature	특별기고	나는 간호사 출신 검시조사관이다	_ 04
-----------	------	-------------------	------

지상강의	돌봄을 위한 상상과 연결	_ 08
------	---------------	------

최신의료동향	기술과 의료를 잇다 : 의료 혁신 중심에서 기술과 간호의 융합 이야기	_ 12
--------	---	------

피플	예술과 IT를 접목하여 문화 사업을 주도하는 티모넷	_ 16
----	------------------------------	------

> 회원들의 이야기	에세이	_ 21
------------	-----	------

포토에세이	_ 62
-------	------

> SNA News	본회소식	_ 70
------------	------	------

간호사, 세계관을 확장하다



김경자 서울특별시간호사회 편집위원

회원 여러분!

서울 간호에서 지면으로 뵙게 되어 기쁩니다.

“간호사, 세계관을 확장하다”를 주제로 권두언을 준비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야 확장과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이팅게일 선서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하며 시작된 길. 임상현장에서 간호로,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서 윤리, 성실, 신뢰, 사랑,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온 시간은 함께라 행복했습니다. 38년 여 동안 함께한 임상현장을 떠나 돌아보니 많은 동료 다른 직군들과 함께한 시간은 큰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간호사라는 전문직에 뿌리를 두고 세계관을 더욱 확장해가는 인생 2막의 길을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4년 의사증원 정책 발표로 의료현장은 의사 부족, 의료 전달 시스템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보며 많은 생각이 교차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두려움이라는 생각에 갇혀서 멈춤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번의 사태를 보며 간호현장의 문제점 개선, 간호대학의 간호 학생 교육과 임상현장의 간호사 수련 체계 등 우리 간호계 교육 시스템 또한 더욱 질 높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미래의 좀 더 나은 의료현장을 기대하며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회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최근 뉴스 및 의료현장의 어렵고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며 10년 전 여름날 국립극장에서 ‘두 도시 이야기’ 영화를 감

상 후 인터넷에서 접했던 찰스 디킨스의 서문 문장들이 떠오릅니다.

최고의 시대이자, 최악의 시대였고,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으며...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그 무엇도 없었고...

세계관 확장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와 사고의 확장이 더욱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는 얼마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의료의 미래와 우리의 역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까?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의료현장의 의사 파업 문제로 간호사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전문간호사,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새로운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리적 안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국가 의료의 미래, 안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볼 때 간호법은 필수과제였기에 올해 국회를 통과 9월 20일 드디어 **간호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간호법 제정 원년으로 **‘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우리 함께 더욱 경주할 때입니다.

디지털, AI, 로봇의 등장 등으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우리 근무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급변하는 위기의 시대에는 스트레스와 역경을 이겨내는 회복탄력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타고나기도 하지만 개인의 노력으로 강화된다고 합니다. 세바스찬 스턴(Udacity 창업자, 스탠퍼드대 심리학교수)은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할 것이란 위기감 극복 및 인간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 조화, 창조 및 소통 교육이 필요하고 사람만이 갖는 역량인 공감 능력을 강조합니다.

나이트게일 선서로 시작한 우리들 삶의 철학인 정직은,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심리적 안전감으로 공감능력을 더욱 향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위기의 때에 본질에

충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간호사는 업무 태도(개인적), 자질, 지식, 능력, 의사소통, 통찰 등 총체적 측면이 요구됩니다. 정보와의 의사소통기술(ICT)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중요 간호 역량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빅 데이터, 정보 활용 기술의 중요성이 교육현장, 임상 및 지역사회 현장, 연구, 의사결정, 개인 맞춤 간호에 적용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의 다양하고 왕성한 활동으로 간호사 세계관 확장이 기대됩니다. 이제 간호법 제정으로 더욱 전문직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진정한 간호사 세계관의 확장은 수동적인 관찰이 아닌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외부사회와 직역 간의 능동적인 소통과 참여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 세계관 확장을 통한 도덕적, 윤리적 판단력의 성숙한 실천은 개인과 인류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 확장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요? 개인의 노력은 기본, 더불어 함께 마음을 열고 힘을 합칠 때 우리의 세계관은 더욱 확장되리라 생각합니다.

지속적 노력, 공부하는 사람, 통합적 사고 역량 개발, 창의 융합적 역량 개발

간호사, 돌봄 간호의 존엄하고 고귀한 정신으로 케어의 책임을 다하며, 건강하고 지금, 여기에서 세계관을 확장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간호사가 행복해야 환자가 행복하다’를 늘 기억하며 스스로 사랑하는 노력을 잊지 않으며 환자, 가족, 나를 아는 주변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용기 있고 정직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2024. 11. 5 김경자

나는 간호사 출신 검시조사관이다.

김진영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KCSI) 검시조사관(MDI)

*"To the living we owe respect,
but to the dead we owe only
the truth." - Voltaire*



간호사!

학창시절 나는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당시만 해도 남자간호사라는 직업이 어색한 시기이기도 했고 나의 성향과는 먼 너무나 고귀하고 힘든 직업이라는 생각에 관심 밖의 영역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안정된 직장생활 중 여러 이유로 간호대학에 다시 입학하고 졸업 후 임상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간호사라는 단어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가치있는 삶의 원동력이자 근간이 되고 있다. 이에 간호사들에게 생소하고 낯설지만 임상 간호현장에서의 간호사와 달리 죽음의 영역에서 간호사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검시조사관(MDI, Medicolegal Death Investigator)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나는 현재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KCSI)에서 검시조사관(MDI, Medicolegal Death Investigator)으로서 10년 남짓 근무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각종 방송 등 매체를 통하여 조금씩 알려지긴 했지만 검시조사관은 아직 많이 낯설고 궁금증 가득한 단어이다. 검시(檢視)는 사망 현장에서 시신의 객관적 모습과 사후현상을 조사하여 사인을 추정하고 범죄혐의점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모든 사망 사건에 대하여 범죄가 행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전제되어 있으며, 수사 그 자체는 아니지만, 검시 결과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가 개시되는 역할을 한다. 즉, 사망 사건에 있어 검시라는 과정을 통해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수사의 단서를 찾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검시는 현장에서 시행되는 외표검시와 대중에 흔히 알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관에 의해 행해지는 내표검시(부검)로 나뉘는데, 검시조사관은 사건현장에서 시행되는 외표검시를 담당한다. 즉, 죽음 후 첫 모습을 보는 사람으로 말없는 사망자의 몸이 말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낌으로서 죽음의 억울함이 있는지 찾아보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간호사와 검시조사관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사망의 종류는 크게 내인사와 외인사로 나뉘는데 각종 살인사건, 자살사건, 단순 병사, 안전사고 인한 사망,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등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정확한 사인의 예측이 어렵다.



우리나라는 사망처리 과정에 있어 병원 입원도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병사) 이외에는 경찰에 무조건 신고되어 경찰의 확인을 거치게 되어있다. 즉, 아주 단순한 죽음이라도 현장확인을 통하여 의구심 없는, 억울함 없는 죽음을 만들고자 하는 현대사회의 요구를 따르게 되어 있다. 이런 사망사고 현장에서 검시조사관들은 의학적·간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1차 사인을 추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검시를 통하여 사망의 범죄가능성 여부를 처음으로 판단한다. 즉, 의학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찰관들을 대신하여 임상경험 및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사망기전에 대한 이해, 간호학적 지식, 법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망에 있어 범죄가능성이 있는지를 유심히 관찰하고 증거를 수집한다. 이는 임상간호 현장에서 오감을 이용하여 환자를 관찰하고 돌봄을 시행하는 간호사정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 단지, 산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임상현장에서는 정확한 간호사정과 돌봄을 통하여 환자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돕지만, 사망현장에서는 간호사정을 바탕으로 한 검시를 통하여 억울함 없는 죽음을 없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사망 사건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검시를 통하여 자살·내인사(병사) 등 일반 사망 사건으로 신고된 것이 타살로, 타살로 신고된 것이 범죄혐의점 없는 일반 사망사건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만약 타살로 의심된다면, 반대로 타살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생각되는지를 의학적·간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경찰관 및 유족들을 이해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지병

으로 인한 단순한 사망의 경우에도 사망 전 환자들이 보이는 임상 증상들이 지병에 합당한 증상인지 확인도 하고, 사인과 관계없는 신체 현상들을 전후관계에 맞춰 해석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서 간호학적 제반지식에 간호사들만의 성실함과 꼼꼼함이 더해져 사망 사건 해석에 더욱더 큰 역할을 한다. 실제로, 간호사 출신 검시조사관들이 사망사건에 투입되고 난 후부터 사망현장에서 사인을 추정하는 데 있어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놓칠 수 있는 사건, 사인 추정에 있어 이해 안 가고 설명이 안되는 사건들이 많이 해소되었으며, 사망현장에서 검시조사관에 대한 의존도 또한 매우 높아졌다.

임상현장에서 환자의 객관적 증상 및 주관적 증상을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를 이해하고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사망 현장에서는 변사자의 몸에 남아 있는 사후 현상들, 진술을 통한 사망 전 몸 상태 및 병력,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사인을 추정한다. 본인은 너무나 다양한 사망 사건 현장들을 경험하였는데, 수많은 사례 중 검시를 통하여 사건 방향이 전환된 사건을 한 두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XXXX년 XX월 XX일 서울시내 한 가정집에서 80대 후반의 여성 노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자영업을 하는 자녀 중 한 명이 오후 4시경 집에 들러보니 어머니가 화장실 앞에서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는데, 119에 신고하였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로 경찰에 자동신고된 사건이었다. 현장에 도착하여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망자인 어머니는 90대 초반의 남편과 같이 살고 있었고, 평상시 고혈압, 당뇨의 지병이 있었으며 걸음걸이가 불편하여 가끔 넘어진다고 하였다. 그래서 자녀들 또한 어머니가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문턱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부



딛혀 사망한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담당형사는 노환 및 지병에 의한 단순한 병사로 생각하여 인근 병원의사를 통하여 사망진단서를 병사로 발급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탈의 후 시행된 검시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멍들이 턱, 목, 가슴 및 팔 부위에서 관찰되고 머리에 심한 부종 및 갈비뼈 골절이 있었고, 단순한 화장실 내 낙상으로 이해하기에는 머리 부종이 여러 곳에서 심하게 느껴졌고, 멍 및 갈비뼈 골절 또한 심폐소생술과는 다른 부위에서 많이 관찰 됐다. 검시 후 고령으로 인한 단순한 병사의 가능성도 있지만 시신의 모습과 사후현상, 지병과 관련된 임상증상 등을 설명하며 폭력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더 높음을 자세히 담당형사에게 의견 제시하였고, 담당형사는 고민 끝에 사건방향을 강력사건으로 전환하여 수사를 개시한다. 의사가 이미 병사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여 쉽게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는데, 내가 폭행으로 인한 사망을 주장하니 얼마나 놀라고 황당했을 것인가! (사실, 수사가 개시되면 담당형사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검시조사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큰 부담이 된다.) 가족 및 이웃주민 진술조사 및 인근 CCTV, 부검을 통한 수사결과 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결론지어졌고, 가해자는 경도의 치매가 있던 남편이었다.

이런 경우도 있었다. 단칸방에 한 남성이 온 몸에 피를 묻히고 방바닥에는 피가 흥건한 채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주변에는 깨진 술병이 있었고 평상시 이웃주민과 술 문제로 많이 시비가 있었다는 진술도 있었던 사건이다. 시신 발견당시 현장의 현관문은 열린 상태였고, 깨진 술병 및 많은 피가 관찰되었기 때문에 담당형사 또한 강력 살인사건으로 인지하여 탐문수사 및 CCTV 분석을 시작한 상황이었다. 과학수사대와 같이 도착한



나는 현장을 같이 둘러본 뒤 증거품을 수집하고 지문 및 DNA 채취도 시행하였다. 이후 탈의를 한 상태에서 검시를 진행하는데 전신의 피를 닦아내고 사망자의 몸을 살피는데 전신에서 시간의 경과가 다른 크고 작은 멍은 다수 관찰되었지만 의심했던 찢린상처나 터진 상처는 관찰되지 않았다. 눈꺼풀 결막, 공막, 전신에서 황달이 관찰되었고 복수도 촉진되었다. 입안을 검시하는 과정에서는 다량의 혈액이 계속 나오는 것도 확인하였다. 모두가 살인사건 가정하에 정신없는 동안 나는 검시 과정을 통해서 1차 사인을 알콜성 간질환에 의한 식도정맥류 파열로 추정하였고 이를 담당형사 및 가족들에게 설명하였다. 즉, 1차 사인을 타살이 아닌 내인사로 바꾼 것이다. 다들 타살로 확정하고 범인을 빨리 잡아야 한다는 생각하에 정신없이 이것저것 확인하고 뛰어 다니고 있을 때 이런 의견을 제시했으니 어안이 병병했을 것이다. 부검결과도 사인은 알콜성 간경화에 의한 식도정맥류 파열이었다. 아마도 간호사라면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망 과정이 아니었을까 한다.

검시조사관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시신을 하루에도 몇 건씩 봐야하고 사회의 어두운 면도 수 없이 봐야하기에 누군가는 못 할 직업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의 검시 의견이 사건의 수사방향 및 결과를 바꾸기도 하고 억울한 죽음을 풀 수 있는 작은 단서가 된다는 것에는 큰 자긍심을 느낀다. 물론 모든 사건이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다. 단순한 사건들도 많다. 하지만, 100건의 사건 중 1건의 사건이라도 억울한 죽음을

풀기 위해 검시조사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갖가지 질환으로 생(生)의 현장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옆에서 늘 함께하는 간호사가 있다면, 사(死)의 현장에서도 사망하신 분들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억울함을 끝까지 함께하려는 간호사가 있다. 그들이 검시조사관이라고 생각한다. 즉, 간호사는 생(生)과 사(死)의 현장, 그 어디에서도 존재하고 고귀한 사람인 것이다.

“To the living we owe respect, but the dead we owe only the truth - Voltaire”라는 격언이 있다. “산 사람에게는 존경을 표하고, 사망한 사람에게는 진실만을 빚지고 있다”라는 뜻인데, 내가 검시조사관이라는 일을 하면서 마음에 늘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현직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환자 한 분 한 분을 존중과 존경의 대상으로 대하듯이, 검시조사관은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진실의 불을 끝까지 밝히는 사람이기에 간호사라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격언이지 않을까 한다.

마지막으로, 어떤 시국에도 사익을 취하지 않고 언제나 환자 곁에서, 그리고 국민 곁에서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간호사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간호사라는 단어가 더욱 고귀하고 빛날 수 있도록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 출신 검시조사관님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간호사 파이팅! 검시조사관 화이팅!



김진영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KCSI) 검시조사관(MDI)
평택대학교 간호학과 겸임교수

초대 베스트 검시조사관(2021, 경찰청)
서울아산병원(중환자실, 수술실), 삼성SDS 근무
대한의료법학회, 안암의료법학회 회원
방송출연: 유퀴즈 온더블럭, 스모킹 건 등 다수
논문: “사망진단서 발급에 관한 법률적 고찰”,
“한국의 존속살해와 자녀살해 분석” 외 다수



돌봄을 위한 상상과 연결

정유미 국군간호사관학교 군건강정책연구소장_대한민국 육군 간호장교_교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지성의 진정한 증거는 지식이 아니라 상상력’이라고 말했다. 간호학은 의약학 분야의 모든 학문이 그렇듯 자연 계열로 분류되어 과학적 속성을 갖춘 학문으로 여겨진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으로써 과학적 근거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간호를 깊이 들여다보면 과학 이상의 그 무엇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단편적이지만 간호학생이 학부 교육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보며 간호학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알 수 있다. 1, 2학년 때는 병태생리학, 해부학, 약리학 등 기초과학의 비중이 높아 자연 계열 학생이 더 쉽게 학업에 적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막상 본격적으로 병원 임상실습을 시작하는 3, 4학년이 되면 계열 간의 격차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사람에 대한 이해, 공감, 소통과 같이 딱히 과학이라고 보기 어려운 역량을 가진 학생들이 강점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교수로서 오랜 시간 학생을 가르치고 그들이 간호사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간호과학의 실천에 있어서 인문학적 소양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느낀다.

몇 년 전 아이와 함께 ‘빅히어로’라는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다. ‘빅히어로’에는 특이하게도 간호로봇이 등장한다. 필자가 특이하다고 느낀 이유는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스토리에 ‘간호’가 중심이 되는 일이 흔치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휴먼터치를 기본 가치로 하는 ‘간호’와 기계 과학의 최첨단에 있는 ‘로봇’의 합성어는 사뭇 낯설게 느껴졌다. 동글동글 폭신하게 생겨 마시멜로를 연상케 하는 간호로봇 ‘베이맥스’는 ‘저는 인간을 해치지 못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라는 말을 남기고 자신을 희생(로봇에게 희생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다)하여 인간을 구해낸다.

‘베이맥스’는 일반인이 바라보는 간호사의 이미지 즉, 소명 의식으로 환자간호에 헌신하는 간호사를 형상화한 듯했다. 그러나 필자는 ‘빅히어로’의 제작팀이 ‘베이맥스’를 통해 결국 인간이 생명존중의 철학과 윤리의식으로 기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코로나19라는 약 3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우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진입했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 일상 속 깊숙이 스며들어 가끔은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할 때도 있다. 필자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대규모 감염병의 시기를 관통하던 약 3년 동안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기술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었다. 2020년 초 국방부-과학기술부 협업사업으로 기획했던 ‘XR (eXtended Reality, 확장현실) 기반 중증외상처치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제가 같은 해 6월 정부의 디지털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22년 12월까지 100억 예산으로 민·관·군 100여 명이 협업하여 디지털 혁신을 이루어낸 성공 사례가 되었다.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와 함께 정부에서부터 군은 물론, 학계와 디지털 기술 업체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 사업은 간호학을 전공했을 뿐 디지털 기술에는 문외한이었던 필자의 작은 상상과 연결이 그 시작이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과 회의가 보편화되고 디지털 기술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던 2020년 직전 한 해 동안 필자는 정말 우연히도 여러 경로로 디지털 기술에 대한 개념을 접할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어설프게 알고 있는 개념을 군간호교육에 접목하기 위해 과제를 기획하고 여러 차례 실패하는 경험도 했다. 그 과정에서 운 좋게도 디지털 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몇 명 알게 되고 공동으로 작업하는 기회도 가졌다. ‘XR 기반 중증외상처치훈련 프로그램 개발’ 과제도 이러한 과정의 연속 선상에 있는 도전의 하나였다. ‘실습실 마네킨 대신 가상공간에 실제로 보기 어려운 외상 환자와 임상현장을 구현하고 환자사정(assessment)과 처치(treatment)를 할 수 있다면 더 실감 나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기반으로, 미군의 가상현실(VR) 환자 이송 훈련 시스템에서 얻은 아이디어,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특성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외상간호교육의 지식과 경험, 2019년부터 도전과 실패에 함께했던 한 기술 연구원의 지식 등 필자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연결한 것 뿐이었다.

솔직히 기술 분야의 전문지식이 많지 않던 필자는 2020년 초 과제를 기획하면서도 어떤 사업이 될지 제대로 감을 잡지 못했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에도 여러 기술 용어와 개념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그러나 ‘상상’이 콘텐츠로 형상화하고 ‘연결’이 사

업을 구체화하는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는 것은 놀라운 깨달음의 경험이었다. 그리고 사업기획부터 종료까지 약 3년 동안 축적된 지식과 크고 작은 실패와 성공의 경험은 언제든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자산이 되었다.

스티브 잡스는 내가 가진 ‘점들(dots)을 연결하라’고 했다. 요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돌봄

이 뜨거운 화두로 논의되고 있다. 돌봄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행위’로 정의되며,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돌봄은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관점을 포함한다. 그러나 ‘돌봄’은 간호서비스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간호의 돌봄 대상자는 전통적으로 질병이 있는 환자였으며 지금도 돌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자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탈병원화 추세와 인구집단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의료전달체계가 병원 중심의 의료서비스에서 벗어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 수준을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도 간호전달 체계의 의미를 확장하고, 간호서비스의 생산과 제공의 경로를 다양화하여 국민의 삶 더 가까이에서 더 적극적인 간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AI의 급부상과 더불어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은 간호사의 안전과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할 뿐 아니라, 간호의 영역을 확장하고 간호사와 대상자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환자 정보를 기반으로 형성된 빅데이터는 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의 상태가 악화하는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적 조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로봇은 단순, 반복적이고 노력이 많이 드는 간호업무를 대신하고, 감염병이나 독성 환경에서의 위험한 업무를 대행

하여 간호사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직접 간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은 노인이 요양원으로 가지 않고 가정에서 가능한 오랜 기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으로도 비용 효과적으로 노인 인구집단의 건강을 관리하는 수단일 수 있다. 그러나 돌봄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모든 간호사가 디지털 기술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언한 이래 ‘초지능, 초융합, 초연결’은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되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고 있다. 모든 것이 융합하고 연결되는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세상이 분초 단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간호사가 병원이라는 환경에 갇혀 변화를 수용하고 기술에 적응하기만 한다면 간호가 발전하기 어렵다.

간호사에게 환자가 돌봄의 핵심 대상자이고 임상이 돌봄을 제공하는 기본 환경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을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 간호사는 4년 교육과정 동안 인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로 인식하고, 간호대상자의 욕구(nursing needs)에 민감하며,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도록 훈련받음으로써, 결국 인간에 대한 전인적(holistic) 이해를 바탕으로 돌봄을 실천하고, 환자를 둘러싼 다양한 보건의료인 간 조정자의 역할수행에 최적화된 전문직으로 성장한다. 또한, 1년 365일 525,600 분이라는 긴 시간을 환자와 희로애락을 같이 하며 환자의 옹호자 역할을 하는 간호사는 돌봄 대상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직업적 특성으로 간호사는 환자 데이터를 가장 유의미하고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맥락화 할 수 있는 의료인이며, 돌봄 대상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지 상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간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받는 직업군 중 하나로서, 돌봄에 대한 철학과 윤리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에 인간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전문직이기도 하다.

상상과 연결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식과 경험을 다양한 형태로 연결하기만 해도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 여기에 사회, 정치, 경제,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주시하며 아이디어를 얻고 이것을 간호와 연결하는 시도를 한다면 작은 상상이 씨앗이 되어 서로 연결되고 결국은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상상과 연결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건강을 새롭게 정의하는 건강 디자이너, 인간의 건강을 향상하기 위해 데이터를 설계·수집·해석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념화하는 기술 디자이너, 모두가 건강 평등을 이루기 위한 정책 디자이너, 더 효과적인 간호·건강교육을 설계하는 교육 디자이너, 다양한 형태의 간호서비스와 전달체계를 개발하는 서비스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

더불어 디지털 시대에 간호사가 더 적극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다면 인간이 삶과 죽음, 질병과 건강, 장애와 비장애의 연속선상에서 인간 존엄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진정한 돌봄이 실현되는 사회와 의료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환자 돌봄을 넘어 인간 돌봄의 전문가로 거듭나며 간호의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고 지평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정유미

국군간호사관학교 군건강정책연구소장
대한민국 육군 간호장교, 교수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 석박사

[주요연구, 저서]

군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2023). 한국건강관리협회
Preparing nurses for disaster
management: A global perspective (2023).
Elsevier

기술과 의료를 잇다

: 의료 혁신 중심에서 기술과 간호의 융합 이야기

김영미 한림대성심병원 커맨드센터 부센터장

간호 영역의 확장: 간호사, 세계관을 확장하다

간호사로서의 길을 걸어오면서, 여러 차례 잊지 못할 환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에피소드는 지금도 저를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외과 외래 근무 시절, 직장암 판정을 받은 한 80세 환자분이 치료를 거부하고 산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에서 삶을 마무리하겠다는 그분의 말에 간호사로서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그분을 상담실로 모시고 가 30분 동안 해야 할 치료와 현재의 상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항암 치료와 방사선치료 후 수술을 받으면 평생 장루를 가지고 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강조하며 다른 병원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들어보시기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30분이라는 시간은 고령의 환자분을 이해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분은 결국 제 상담을 뒤로하고 병원을 더 이상 방문하지 않으셨고, 2년 후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영구적 인공항문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에도 불구하고 인공항문을 자가 관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두려움이 그 이유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매번 외래에 방문해서 몇 년간 장루간호를 하며 자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였지만, 제가 진료협력센터로 부서 이동을 하게 되었을 때, 그분은 "난 이제 어찌지?"라는 말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때 저는 간호사로서의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현재 병원 외래 시스템으로는 그분이 오실 때마다 장루 간호를 해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외래 간호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매번 그렇게 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루간호를 하며 주머니 부착 방법을 가르쳐 드리며 언제든지 찾아오시라고 했지만,

그 이후로 그분은 늘 그랬던 것처럼 요구르트만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우리의 간호가 무엇인지, 우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외래 시스템과 의료 환경에서 간호사들이 겪는 어려움과 한계를 절감하게 된 저는, 커맨드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하며 기술을 통해 가치 있는 간호를 할 시간을 얻을 수만 있다면, 반복된 단순 업무를 기술로 해결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간호사의 영역은 단순히 환자의 치료를 돕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겪었던 한계와, 기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 간호의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무자로서 현장에 근무할 때는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은 기술을 통해 개선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뛰어난 기술이 세상에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명확한 시나리오와 명분을 만들어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우리의 현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 병원 디지털화 현황과 간호 업무의 디지털화

전 세계적으로 병원들은 빠른 속도로 디지털 전환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의료 영상의 디지털화,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 보조 시스템 등 여러 디지털 기술이 의료 현장에 도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병원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 업무의 디지털화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술의 도입이 단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업무 특성 때문에 간호사의 역할을 디지털 기술로 대체하거나 보조

하는 것은 다른 의료 직군에 비해 더욱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간호사들의 업무가 갖는 특수성과 복잡성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의 실무 경험과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간호사의 역할

디지털 혁신이 모든 산업에 걸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헬스케어 분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AI와 다양한 신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왜 병원 현장의 간호사들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 얽매어 있는 것일까요? 저는 20년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게 된 것은, 기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하느냐가 핵심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한림대 성심병원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담팀에 근무하게 되었을 때, 저는 IT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동안 간호 현장에서만 일해왔기에,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병원 시스템에 도입되는지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진행하면서 깨달은 것은, 기술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기술 도입을 마냥 거부하는 간호사들의 태도에서도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간호사들 중 일부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기술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변화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결국 간호사의 업무 효율성과 환자 케어의 질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는 더욱 효율적이고 보람찬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간호사가 자신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환자 케어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

회로 작용해야 합니다. 기술 도입을 무작정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현장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더 나은 간호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접근법은, 현장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술의 도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각종 기술이 병원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기술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하는 과정을 통해, 디지털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간호사가 단순한 기술 사용자에서 벗어나, 기술 도입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병원 구축과 서비스 로봇 활용의 경험

스마트 병원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된 한림대 성심병원의 외래 시스템은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환자 도착을 알리는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이를 전자 의무기록(EMR)과 연결하는 기술적 요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어떻게 쉽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심도 있게 설계한 결과물입니다.

예를 들어, 고령층 환자들이 키오스크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환자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진료 전 확인 사항을 자동으로 체크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현재 외래 환자의 80%가 키오스크를 활용하고 있으며, 환자 및 의료진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외래 간호사로서의 제 현장 경험이 이 시스템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한, 한림대 성심병원이 7종 73대의 서비스 로봇을 도입하여 2년 만에 4만여 건의 로봇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처음 로봇을 도입할 당시, 저는 로봇 기술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지만, 이는 큰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로봇 기술자들이 병원 현장을 잘 이해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여, 로봇이 효과적으로 의료진을 도울 수 있도록 로봇 사용 시나리오와 환경을 세밀하게 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로봇 엄마'라는 별명까지 얻었으며, 이는 병원에서 로봇 기술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있어, 현장 간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미래 간호 업무 발전을 위한 제언

간호사의 업무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미래의 간호사는 기술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현장 지식을 바탕으로 기술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간호사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현재 간호사의 업무 정의에는 디지털 전환이 포함되지 않지만, 저는 미래에는 이 역할이 간호사의 핵심적인 업무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간호 교육 과정에 서부터 기술을 현장에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코딩이나 데이터 분석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 병원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전담할 수 있는 간호사 팀을 구성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간호 업무의 개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간호사들이 전문인으로서의 역량을 더욱 발휘하고,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융합적인 학습과 더불어 엄청나게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제가 지금 이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었던 것은 20년간의 임상 간호 경험에서 몸으로 익힌 도메인 지식을 기술로 융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들이 더 이상 병원 현장을 떠나지 않고,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술과 의료 현장을 연결하는 간호사에게 딱 맞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간호사들의 괴롭힘 문화를 없애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문화는 바쁜 현장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모두가 바쁘기에 후배를 가르칠 시간도, 감정을 돌봐 줄 시간도 부족합니다. 저는 여러 기술을 도입하여, 간호사들이 가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감히 기존에 대부분의 병원에 도입된 대부분의 기술이 간호사의 업무를 추가로 늘리는 방향으로 도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의 경영진은 병원의 이미지를 높이거나, 병원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도입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주관하는 여러 연구는 오히려 병원 현

장에 있는 간호사들을 더 힘들게도 했습니다. 새롭지만 사용하기 복잡하고, 불편한 기술들이 난무했으며, 이는 간호사들로 하여금 기술 도입을 꺼리게 만드는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는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의료 현장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사 개개인이 자신의 업무 방식을 재고하고, 변화의 주체로서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해야 합니다. 간호사로서 우리의 역할이 변화할 때, 우리의 의료 현장은 비로소 달라질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주도해 나가는 간호사 영역이 활성화 되기를 바랍니다.



김 영 미

한림대성심병원 커맨드센터 부센터장

경북전문대학
한림대성심병원 간호사
도원디지털의료혁신연구소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ICT기반 의료정책유공자)



예술과 IT를 접목하여 문화 사업을 주도하는 티모넷

박진우 (주)티모넷 대표이사



티모넷은 대한민국 교통카드로 알려진 (주)티머니의 사내벤처 1호로 2007년도에 창립한 IT 서비스 기업입니다. 티모넷은 IT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좀 더 편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티모넷의 첫 번째 과제는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플라스틱 교통카드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를 개발하였고 2009년부터 상용화하여 현재 국내에서 약 3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플라스틱 카드 대신 핸드폰의 NFC 기능으로 대중교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스마트폰으로 플라스틱 교통카드를 충전할 수 있는 '멤멤' 앱 서비스, 클라우드 HSM에 저장된 인증서를 호출하는 클라우드 인증 서비스 'EasySign', 대중교통과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상품권 'T-Coin' 발행 등 다양한 모바일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IT로 우리 일상에 예술문화를 좀 더 쉽게 접근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제주의 폐쇄된 통신 벙커를 리뉴얼하여 빛과 음악을 활용한 국내외 명화 및 고전 작품을 몰입형 미디어 아트 형태로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 제주 '빛의 벙커'를 선보였습니다. 이후 계속된 빛의 시리즈로서 2022년에 서울에 '빛의 시어터'를 개관하며 예술과 IT를 접목한 국내 디지털 문화예술 사업을 리딩하고 있으며 그 영역을 국내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첫 몰입형 미디어 아트 공간 '빛의 벙커'

티모넷은 2018년 프랑스 '컬처스페이스'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제주 성산에 위치한 폐쇄된 국가 기간통신시설을 미술, 음악, 공간, 기술이 융합된 몰입형 예술 전시관 '빛의 벙커'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첫 개관 전시로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여 ‘빛의 벙커: 클림트’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연인(키스)’, ‘유디트’, ‘처녀’ 등의 작품을 몰입형 미디어 아트로 구현하여 국내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후 ‘빛의 벙커’는 반 고흐, 모네, 세잔, 샤갈 등 다양한 해외 거장들의 전시를 매년 개최하며, 국내 몰입형 미디어 아트 공간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빛의 벙커’의 몰입형 미디어 아트는 넓은 전시 공간에서 100여 대의 미디어 서버, 고성능 프로젝터, 스피커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는 티모넷의 기술력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전시를 온몸으로 느끼며 다감각적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IT 기업인 티모넷의 대용량 데이터 및 다중 서버 관리 기술 덕분에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를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빛의 시리즈’ 최초로 한국 작가를 주인공으로 한 ‘이왈중, 중도의 섬 제주’ 전시를 자체 제작하여 선보였습니다. 전통 회화 기법으로 제주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이왈중 화백의 작품세계를 몰입형 미디어 아트로 재해석하여 관람객에게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몰입형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 재탄생된 국내 작가의 작품들을 파리, 뉴욕, 암스테르담 등에 있는 해외 빛의 시리즈 제휴전시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제주 ‘빛의 벙커’에서는 올해 3월 새롭게 시작된 ‘샤갈, 파리에서 뉴욕까지’ 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이 전시는 색채의 마술사로 불리는 마르크 샤갈의 예술 세계를 새롭게 조명하여 샤갈이 젊은 시절 매료된 예술의 중심지 파리에서부터 전쟁을 피해 망명한 뉴욕까지 다다르게 된 그의 예술 여정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전시는 샤갈의 예술 여정을 따라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시장 내부의 벽과 바닥에 투사되는 샤갈의 작품에 따라 클래식과 재즈 등 작품에 걸맞은 다양한 음악이 함께 울려 퍼집니다. 이를 통해 관람객은 빛과 음악이 온몸을 휘감는 역동적이고 몰입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빛의 벙커 '이왈중, 중도의 섬 제주'展

Bunker des Lumières – Lee Wai Chong 2023 – Direction & Production : TMONET © TMONET/Lee Wai Chong,
Photo ©TMONET – Bunker des Lumières



▲빛의 벙커 '샤갈, 파리에서 뉴욕까지'展

Creative Director: Gianfranco Iannuzzi – Graphic & Animation Design: Spectre Lab – Music Supervision and Mix: Start-Rec – Production: Culturespaces STUDIO® ©TMONET – Bunker des Lumières

공간이 주는 감동, 울림이 있는 복합문화공간 서울 ‘빛의 시어터’

티모넷은 제주 ‘빛의 벙커’에 이어, 2022년 국내 두 번째 ‘빛의 시리즈’ 몰입형 예술 전시관인 ‘빛의 시어터’를 서울에 개관하였습니다. ‘빛의 시어터’는 광진구 위커힐 호텔에 있었던 예술공연극장 위커힐 시어터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 새로운 몰입형 아트 전시관으로 선보였습니다.

1963년에 개관한 위커힐 시어터는 당시 현대식 무대 시설과 세계 정상급의 쇼를 소개하던 서울의 대표적 문화 명소였습니다. 특히, 미국 재즈의 전설인 루이 암스트롱을 비롯한 국내외 유명 뮤지션들이 다양한 공연을 펼쳤던 이 장소는 한때 우리나라의 “新 문화예술의 도입지” 역할을 했던 장소이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새로운 문화예술 시설들이 확충되어 사람들이 찾지 않게 된 공간이었습니다. 과거의 추억을 되살리고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티모넷은 ‘빛의 시어터’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빛의 시어터’는 ‘빛의 벙커’ 공간의 약 2배에 달하는 규모로, 몰입형 아트 전시관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초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넓은 공간을 극복하기 위해 먼저 고화질 프로젝터, 고성능 미디어 서버, 영상 음향 자동화 시스템, 3D 음향 스피커 등 고성능 장비 도입하였고, 최신 기술이 적용된 운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총면적 약 3,400㎡와 최대 높이 21m의 거대한 공간 속에서 관람객이 웅장한 느낌을 주는 몰입형 예술 전시의 최적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빛의 시어터’는 기존 공연장의 공간적 특색을 살리면서 관람객이 무대 위 배우가 되는 순간, 작품과 하나 되는 순간 등을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공간에 스토리텔링을 더하고 유니크한 연출을 통해 몰입감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옛 위커힐 시어터의 상들리에 등 무대 장치를 그대로 보존하여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였고, 색다른 뷰 포인트를 제공하는 ‘메자닌’, ‘브릿지’, ‘미러룸’ 등으로 공간을 구성하여 전시장 곳곳을 탐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재미 요소도 마련하였습니다.



▲빛의 시어터, 구스타프 클림트, 골드 인 모션展

Creative Director : Gianfranco Iannuzzi - Created by Gianfranco Iannuzzi, Renato Gatto and Massimiliano Siccardi - Graphic & Animation Design : Cutback - Production : Culturespaces Digital® © TMONET - Théâtre des Lumières

‘빛의 시어터’는 첫 개관 전시로 ‘빛의 벙커’에서 많은 관람객에게 사랑받았던 구스타프 클림트의 전시를 재구성한 ‘구스타프 클림트, 골드 인 모션’을 선보였습니다. 이 전시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전 생애에 걸친 작품세계를 조명하며, 역동적인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통해 작품의 황금빛 장관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첫 전시에 이어 이브클랭, 가우디, 달리 등 다양한 거장들의 명화 작품을 소개하였고, 현재는 ‘베르메르부터 반 고흐까지, 네덜란드 거장들’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시에서는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램브란트 반 레인의 ‘야경’,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등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표현한 네덜란드 거장들의 작품이 빛과 음악을 통해 광활한 전시장 내부에 펼쳐집니다. 관람객들은 마치 17세기 네덜란드를 여행하는 듯한 몽환적이고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빛의 시어터’에서는 명화 콘텐츠 외에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글로벌 K-POP 아티스트 NCT DREAM을 주제로 몰입형 미디어 콘텐츠 ‘Theater of Dreams’를 제작하여, ‘빛의 시어터’ 공간 속에서 역동적으로 재현된



▲빛의 시어터, 구스타프 클림트, 골드 인 모션展

Creative Director : Gianfranco Iannuzzi - Created by Gianfranco Iannuzzi, Renato Gatto and Massimiliano Siccardi - Graphic & Animation Design : Outback - Production : Culturespaces Digital® ©TMONET - Théâtre des Lumières

K-POP 콘텐츠를 관람객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K-Culture를 활용하여 미디어아트와 새로운 차원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올해 ‘빛의 시어터’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이뤄지며, 유니크한 장소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예로,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인 ‘Spotify’에서 진행한 글로벌 팝아티스트 ‘빌리 아일리시’의 청음회가 있습니다. 이번 청음회를 통해 미디어아트 전시장이 전시 이외에도 다양한 기획 행사를 수용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빛의 시어터’가 복합예술 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로 확장하는 티모넷’

‘빛의 시리즈’는 파리, 암스테르담, 뉴욕 등 전 세계 5개국 9 개소에 전시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티모넷이 주관하는 제주 ‘빛의 벙커’와 서울 ‘빛의 시어터’ 전시관에는 작년 기준으로 누적 30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앞으로 티모넷은 제주 제2 부지와 일본에 ‘빛의 시리즈’ 전시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한국의 문화를 소재로 한 몰입형 미디어 아트를 제작하고 해외 관람객에게 소개하여 한국적 정서를 세계에 알리는 데 노력할 것

입니다. 또한 미술을 넘어 K-POP, 건축, 사진,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콘텐츠로 확장하여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고려 불화, 민화, K-POP, 현대미술 등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반영한 K-Culture를 기반으로 몰입형 미디어 아트를 공개할 예정이며, 문화와 예술이 서로 교감하고 해외와도 자유롭게 쉽게 교류가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벤처기업으로서 제2의 역할을 이루고자 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티모넷은 간다.

티모넷은 지식과 노력을 바탕으로 세상에 없던 근사한 것을 창출하는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며, 직원들이 자신감을 느끼고 꿈을 펼쳐 성공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특히 앞으로 활용 가치가 무궁무진한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유한 문화콘텐츠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몰입형 미디어 아트로 제작하여 기술과 문화의 만남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IT로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예술문화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티모넷 임직원들의 즐거움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개를 마칩니다.

박진우

(주)티모넷 대표이사
빛의 시어터, 빛의 벙커



프랑스 ESC Lyon CESMA MBA (1994)
프랑스 Lyon2 대학 MIS 박사 과정(DESS) (1993)
프랑스 Lyon3 대학 국제경영학 석사 (1992)
한양대학교 무역학과 학사 (1990)

빛의 시어터 서울 개관(2022)
빛의 벙커 제주 개관(2018)
(주)티모넷 대표이사(2007)
(주)한국스마트카드 사업전략팀 (2004)
(주)LG-CNS Biz model팀 (2001)
(주)LG-EDS 시스템 PO팀 (1999)
쌍용정보통신 전략기획팀 (1996)

회원들의 이야기

에세이

- 21 최옥희 너 또한 그러하길
- 22 장은주 감성라떼 앰버가 19년차 임상간호사가 된 이야기
- 24 성은정 저희 병동에는 특별한 손님이 옵니다
- 26 유은상 외과계중환자실에서 유은상 올림
- 28 김정희 나의 임종간호
- 30 오지연 여우와 고슴도치
- 32 김요섭 움직이는 구급차에서 임종간호를 제공하다
- 34 이아현 초심을 잃지 않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 36 곽한나 행복의 적
- 38 김유진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를 읽다
- 40 조민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합니다.
- 42 이양환 15년차에 겪는 뒤늦은 성장통
- 44 윤다연 나의 몽골 봉사활동 이야기
- 46 최지영 혼돈의 시대에 무소의 뿔처럼 절대 혼자 가지 않는 우리는 간호사입니다.
- 48 윤명중 나의 노로 바이러스 장염 일지
- 50 권나은 행복과 고통
- 52 연제영 취미 찾아 삼만리
- 54 남윤경 지극히 개인적인 유방암 이야기
- 56 김은진 간호법, 후배들에게도 역사 의식이 필요하다
- 58 최하영 생명을 잇는 다리 : 간호사의 조혈모세포 기증 이야기
- 60 김재경 Spread the word

너 또한 그러하길

최아희 한겨레와 함께 지은 10주년 기념특별호

봄의 어느 날 퇴근길
소복이
예쁘게 피어있는
꽃을 보며
맑고 푸른 하늘을
한 폭의 그림처럼
눈 속에 담게 하며

여름의 어느 날 출근길
생기 넘치는
초록의 잎사귀로
새들을 품는 것을 보며
살아있음에
행복함을 느끼게 하며

가을의 어느 날처럼

겨울의 어느 날같이

그렇게 사계절을 눈 속에 담게 하고.

그리하여
모든 나무처럼
너의 인생도
감사함과 따뜻한 마음을 선사하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때로는 그늘이 되고
한 순간 한 순간
시선을 사로잡으며
사랑받는

너 또한 그러하길.

<작품 설명>

몇십년 직장생활을 하며 무심코 지나쳤던 그 자리를
언제나 묵묵히 지키고 있었던 모든 나무들처럼
사회 초년생 나의 딸도 곳곳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않고
한자결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성라떼 앰버가 19년차 임상간호사가 된 이야기

장은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피아니스트를 꿈꿨던 소녀는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간호사가 되기를 택했다.

피아노를 연주할 때 행복했었다고 기억된다. 7살 적부터 피아노 전공만을 생각했었던 감성라떼 간호사에게 IMF 위기는 꿈을 현실로 가져다주지는 못했다. 그렇게 15살의 어느 날, 나의 꿈은 아름다운 선율로만 남게 되었다. ‘무얼 해야 할까?’라는 장래희망에 대한 고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오늘은 꿈이 있어 더욱 빛날 수 있었던 감성라떼의 어린 시절,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자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임상 간호사가 되고자 했던 3가지 이유로 풀어가고자 한다.

꿈은 계속된다

1. 냉혹한 현실, 실패는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열어보면 장래희망 칸은 항상 피아니스트라고 적혀 있었다.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예원 진학을 추천받기도 했었지만 부모님께서는 특별함보다는 평범함 속에서 꾸준함이 유지하자고 하셨다. 시련이 찾아온 건 15살 즈음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IMF의 여파를 더는 견디지 못했고 피아노 연주를 할 때 행복하던 나에게 부모님은 피아노를 그만두자고 이야기하셨다. 부모가 되어보니 그때 나의 부모님이 어떤 마음이셨을지,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을 것도 같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왜 그래야만 하는

지'를 묻지 않았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는데 몰입했다.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처럼 해답은 의외로 빨리 찾았다. 내 가슴에 새로이 자리 잡은 작은 꿈씨 하나, 바로 간호사였다. 꿈의 방향키는 나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삶은 언제나 그러하듯 계획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나는 내 삶을 바람에 표류하는 배에 비유하곤 한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이곳저곳 바다를 표류하는 돛단배.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다. 거센 바람일지라도 자신이 마음먹기에 따라 성장으로 이끌어 주는 바람이 되어 주기도 한다. 바람은 어디에나 있다. 그 세기만 다를 뿐... 바람따라 떠밀려 가는 곳, 그곳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

2. 간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꽤 오랜 시간 간호사를 꿈꾸며 지내와서 일까? 내가 간호사가 되겠다는 것은 나를 비롯한 주변 지인들 마저도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했었다. 고등학교 때 간호사관학교에서 입학설명회를 왔을 당시,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빨리 가서 설명회를 들으라고 등을 떠밀어 보냈으니 말이다. 간호사관학교는 성적 커트라인이 나에게 허락되지 않았는데 말이다. 허락되는 건 체격 조건뿐? 그때 즈음이었던 것 같다. 간호사가 되기로 마음 먹은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고민을 했었다. 대학 진학을 앞둔 시점이었다. 많고 많은 직업 중에 '왜 간호사가 되고 싶었을까?' 하고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때 내 기억에 또렷이 자리 잡고 있던 간호사 한분이 계셨다. 어릴 적부터 가족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던 장애우의 집에 봉사를 오시던 간호사 선생님이셨다. 어린 나의 기억에 참 간호를 행하시던 간호사 선생님이셨고 선한 영향력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었기에 나에게 꿈씨를 심어주셨다.

3.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 = 돕고자 하는 마음 = 잘 할 수 있는 일

환자를 간호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만으로 간호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 간호사라는 직업은 머리와 가슴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직업이다. 투병 생활을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그 고통은 몸에서 마음으로의 이환을 가져오게 마련이다. 그래서 간호사는 환자를 간호하는 데 있어서 따뜻한 가슴도 갖춰야 한다. 어린 시절 간호사 선생님을 옆에서 돕고 지켜보며 들었던 생각은 힘들다는 감정이 아닌 '보람'이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자발적으로 봉사를 다녔던 경험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장애우 시설에 방문하여 발달장애 혹은 지체장애 질환을 앓고 있는 장애우와 함께 활동하며 그들 모두 도움과 지지가 필요하고 사랑받아 마땅한 존엄한 존재임을 배워갔다. 그 경험 안에서 누군가를 돕는 일이야말로 스스로가 잘할 수 있는 일, 보람된 일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보내며 임상 간호사에 대한 목표와 비전을 단 한 번도 꺾지 않고 키워나갔다.

간호사가 된 이유!!

꿈이 있는 사람은 소인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간호사라는 꿈의 시작은 내 의지가 아니었지만 그 결과는 나의 의지였다. 꿈이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더 빛날 수 있다.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는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임한다면 도전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전공 공부는 고등학교 입시의 연속이라고 표현할 만큼 치열하다. 단언컨대 자기 믿음과 신뢰에서 비롯된 꿈을 품고 임한다면 어느 순간 스스로가 매우 빛난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꿈을 이루고자 하는 아이의 마음을 동심이라고 말한다. 동심은 아이들의 마음만이 아니다. 꿈이 있는 간호사가 행하는 환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한 감성 간호는 간호사들의 동심이 될 것이다.

자기 믿음과 의지만 있다면 꿈은 계속된다.

꿈은 이루어진다.

2023년 5월, 나는 특별한 병동(이대서울병원 대동맥 혈관 병동)의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국내 대학병원 최초의 대동맥 치료 전담 병원으로, 365일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하며 EXPRESS(Ewha Xtraordinary PREcision Safe AORTIC Surgery) 시스템을 가동하는 이곳은 각지에서 헬기를 타고, 구급차를 타고 온 생사를 넘나드는 초응급 환자가 도착하여 수술과 치료를 받는 특별한 곳이다. 얼마 전, 대동맥 수술 1000번째 환자가 수술 후 중환자실 치료를 마치고 우리 병동으로 전동되었다. 최단 기간에 대동맥 수술 1000례를 달성한 것이다. 1000번째 수술 환자라니 감동스럽고 뿌듯하다. ‘그동안 고생했다’라는 생각이 스쳐간다. 수술하지 않고 약물치료를 받거나 추후 수술을 계획하며 치료받는 환자까지 포함하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내가 있는 대동맥 혈관 병동을 거쳐 갔을까. 입원하고 퇴원했던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은 이곳에서 어떤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퇴원했을까. 그동안 나와 함께 일하던 간호사들에게 지난 1년은 어떤 경험과 기억으로 남아 있으며, 이곳에서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우리 병동에 오는 특별한 손님은 내가 간호하는 환자와 보호자이다. 대동맥 혈관 질환의 특성상 초응급 환자나 중환자인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입원 - 수술(치료) - 퇴원까지의 재원 기간이 1~4주로 길다. 환자와 보호자의 걱정과 불안, 스트레스도 많다.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는 환자,

보호자, 간호사, 의사 모두가 한 팀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의 회복 노력과 더불어, 옆에 상주하는 보호자의 간병과 지지, 담당 간호사의 특별한 간호, 그리고 담당 의사의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모두 합을 이루어야만 안정적이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원팀이다(함께 근무하는 간호사들).

초응급, 응급, 중환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이곳은 이벤트가 없는 날이 드물다.

“선생님, 환자 혈압이 떨어졌어요.”

“선생님, 환자 맥박 수가 120회를 넘었어요.”

“선생님, 환자가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다고 해요.”

“선생님, 환자의 심전도가 이상해요.”

“선생님, 환자가 경련을 해요.”

업무 중 흔하게 발생하는 이러한 상황들에서, 함께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원팀이 되어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하고, 보고하고, 투약하고, 처치하며 각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환자의 상태가 회복되면 다 같이 안도하고 기뻐한다. 힘든 만큼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온다. 오늘도 힘들었지만 뿌듯하다. 원팀으로서 힘든 일이 생겨도 오늘도, 내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생긴다.

저희 병동에는 특별한 손님이 옵니다

성은정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

우리는 원팀이다(환자와 보호자, 간호사).

주 5일 근무하는 동안에는 남편, 아들보다 내가 담당하는 환자와 보호자들과 소통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 장기 재원 하는 환자와 보호자들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하고 위로하다 보면, 가족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어제보다 오늘 환자의 호전된 컨디션을 느끼며 함께 기뻐하고, 어제보다 힘들어하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며 스페셜 간호를 제공하고 위로하며 격려한다. 출근하여 라운딩을 가면 반겨주는 환자와 보호자들, 담당 간호사로서 당연한 설명과 처치를 했을 뿐인데도 감사함을 표현해 주시고 폭풍 칭찬을 해주시는 환자와 보호자들, 저에게 감사의 표시로 동네 맛집에서 꼬마김밥을 사다 주신 보호자님의 마음과 정성, 입원 동안 무뚝뚝하시다가 퇴원하기 전날, 내일 퇴원한다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표현해 주시는 환자.

속상할 때도, 힘들 때도, 때로는 벅차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이러한 소소한 감동의 경험들이 나에게 힘이 되어 이곳에서 일할 수 있었다. 우리 병동에 입원하는 특별한 손님인 환자와 보호자가 내가 느낀 감사함과 감동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15년 차 간호사가 생각하는 간호의 전문성

“간호는 단순한 신체적 돌봄을 넘어서, 환자와의 신뢰 관계 형성과 전인적 돌봄을 중요시하는 분야입니다.” 이 사전적 정의에 적극 공감한다. 임상에서 5~10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라면 환자의 상태에 따른 의료적 처치는 누구나 숙련되게 제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니어 간호사의 전문성이란 무엇인가? 나는 환자 및 보호자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환자의 신체적 돌봄뿐만 아니라 공감, 이해, 지지를 통해 정서적 돌봄까지 아우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특별한 손님인 환자와 보호자가 대동맥 혈관 병동에서의 입원 경험을 감동, 치유,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최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성을 다해 간호하겠다는 다짐을 한다.



외과계중환자실에 근무하려면 공부할 내용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의 자매 여동생이 어느날 새벽에 일어났다가 저의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고 살짝 노크하고 방문을 열기에 돌아봤더니, “언니?! 또 밤 새는 거야?”하였습니다. “아니. 조금 더 하고 잘 거야. 숙제가 많아.” 하니 “아이고~ 그러다 죽는 거 아냐?”하는 동생의 한마디에 빵 터져서 함께 웃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숙제도 참으로 많았고, 따로 공부할 분량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신규 선생님이 계시다면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 1년만에 10년치 공부 거의 다 하니까,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깊이 있게 공부하고 이해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완전히 익혀야 할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과연 퇴근을 한 건지, 퇴근을 하다 만 건지 분간이 안가는 OT(시간외 근무 Over Time)를 받는 2달 동안은, 하루에 겨우 3시간 남짓 자면서 해냈던 거 같습니다.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그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고 상황에 대처할 만한 여유가 생겨서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에 없던 돌발 상황은 수시로 일어나게 마련이죠. 첫 독립 후에는 환자분이 갑자기 구토(vomitting)만 해도, 이게 noti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곧 진정될 상황인지, 분간이 안되고 눈물부터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혹시 흡인

(suction)을 잘못해서 토를 하셨나? 나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환자분께 나쁜 영향을 끼친 건 아닐까...? 오만가지 생각들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맞닥뜨린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환자분이 잘못되시지는 않나 걱정하며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던 새내기 초짜 시절은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뻘뻘입니다. 인수인계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적었다고 생각했는데, 버스 정거장을 향해 걸어가다가 문득 더 적어야 할 내용이 생각나서 다시 돌아가 보았던 적도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당시를 회상하니 지금의 저는 너무 무심해진 것 같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늘 자신을 되돌아보며 그날 그날을 새롭게 기록하고 배우는 것이 즐거웠던..., 마치 성장판이 닫히지 않았던 어린 시절처럼... 그 때의 제가 그립습니다.

중환자실은 사실 진정치료를 많이 하기도 하고, 의식이 또렷한 분이 많지는 않아서 환자와 라포가 생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부서는 신경외과, 신경과, 흉부외과(폐) 파트였습니다. 신경외과 중에서 척추 환자들과 흉부외과 환자들은 의식이 또렷해서 라포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 환자들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흉부외과에서 식도암으로 고생하며 거쳐가신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식도암 수술을 하고 문합 부분 누출로 입실하셔서 중환자실에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병동에 갔다가 다시 중환자실로 되돌아오기를 수없이 반복했습

외과계중환자실에서 유은상 올림

유은상 서울대학교병원

니다. 그 어르신은 짜증이 많으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저는 그분 주담당이었습니다. 신체의 일부를 병마라는 괴물의 입에 콧물려서, 잠 못자고 몸 아프며, 아무리 발버둥 쳐도 괴물의 이빨에서 벗어나기는 커녕 점점 더 입속으로 깊이 먹혀들어갈 때... 어떤 성인군자가 짜증 안내고 견딜 수 있을까? 그러니 그 고통을 이해 해줘야 되고, 받아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간호사들의 몫입니다.

어느 날 그 어르신께서 기침을 하다가 폐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났을 때는 너무나 긴급한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환자 병실에 설치된 흡인(suction)을 끝없이 계속하고 있고, 하얀 바탕에 청색 줄무늬 환복은 온통 검붉은 피로 물들어 가고... 피는 기관지 절개부위(tracheostomy site)로 솟구칩니다. 응급으로 수혈하면서 혈관조영실로 겨우 모셔드렸습니다. 그 어르신께는 많은 상황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진정 치료 끝나고 나면 또 폐렴으로 고생하고 조금 진정되어 안정을 찾으신다 싶어서 병동으로 가시면, 얼마 안 있어 다시 내려오시고... CPR(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하고 자발순환호흡(ROSC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되고... 이러한 반복 속에서도 어르신은 의연하게 삶의 의지를 잃지 않으시며 견디셨습니다. 어르신의 아내분도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면회 시간 때면 지체없이 들어오셔서 환자분을 아끼는 마음으로 간병하기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어르신은 건장한 체격이었는데 1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건강했던 몸은 다 어디로 가고 바람 빠진 풍선처럼 훌쩍하고 수척해지셨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병마와 생사를 걸고 싸우느라 병동으로 전동가실 때는 쇠잔해지신 뒷모습이 보기에 마음 잔할 정도로 안돼보였습니다. 어르신을 배웅하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르신 잘 가세요. 다신 오시면 안돼요.” 터지려는 울음을 애써 억누르며 인사 말씀을 나누는데, 어르신께서 무심하게 칠판에 “유은상 보러 올게.”라고 적으셨을 때, 벼락이라도 맞은 듯이 “왕~”하고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병동으로 가시고 잘 계시나 싶었는데, 일주일도 채 못되어 중환자실로 재입원하셨을 때는 참으로 웃픈 상황이 되었지만, 어르신께서는 힘없이 늘어진

손을 겨우 들어 말없이 인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어르신 손을 잡고 “왜, 또 오셨어요.” 하면서 돌봐드렸습니다. 병마는 어르신 삶의 의지를 짓밟고 뭉개고 피를 토하게 하면서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존엄하셨던 어르신께서는 제가 나이트 근무를 하던 중 하늘로 떠나셨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 저에게 “마지막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은상쌤이 보내주셔서 다행이야.”라고 하실 때 또 눈물이 펄펄 쏟아졌습니다. 어르신께서 그만큼 저를 믿고 의지하셨다는 것을 가족분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말씀이어서 저도 슬픈 가운데 위안을 받았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우리 병동을 거쳐 하늘 나라로 떠나가셨지만, 그 어르신에 대한 기억은 아무리 되새겨도, 되새길 때마다 참으로 슬프고 아린 기억입니다. 근무를 마친 뒤 바로 서울 끝자락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영정 앞에 분향하고 옆드려 인사드리니, 하룻밤 사이에 삶과 죽음이 엇갈리는 인생의 덧없음에 하염없이 눈물이 솟아났습니다.

같이 간 동료들과 아침으로 햄버거를 먹으며 “우리는 또 일하러 가야 돼!” 하면서 함께 힘내자고 눈빛을 교환했던 그날이 기억납니다.

어르신! 잘 계신가요?

저는 어르신!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외모가 많이 닮으셨어요.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기도삽관(intubation)을 하지 않겠다고 하셔서, 조금 버티시다 곧 하늘로 가셨는데요. 어르신은 기도삽관(intubation)을 시작으로 참 오래오래 치료를 이겨내셨잖아요.

그래서 어르신을 더 응원했던 거 같아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생각이 나서, 더 간절히 살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늘에서 행복하세요, 어르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 어르신 덕분에 중환자실에서의 좋은 기억이 충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상 올림.



나의 임종간호

김정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1. 환자의 죽음을 보며

“선배님... 보던 환자분이 임종해서 나가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 짜증나.”

간호대학 실습을 돌던 중 환자의 죽음을 처음 접하며 환자 가족들의 슬픔을 지켜보던 나는 눈물을 왈칵 쏟았고 바쁘게 일하고 계시던 선배에게 한 질문에 바로 돌아온 “짜증나”라는 답이 의미하는 바는 물론 채, 그날의 분위기와 슬픔은 학생인 나에게 의문으로 남으며 지나갔다.

2. 신규간호사

“용태야~ 금식이 풀리면 뭐가 제일 먹고싶어?”

“초코우유요.”

며칠 후 금식이 풀린 용태를 위해, 이른 아침 출근길에 매점에 들러 초코우유를 사들고 용태에게 들렸다. 이후 퇴원하는 용태에게 향암으로 빠진 머리와 이식 후 거부반응으로 검게 변한 얼굴을 가릴 수 있게 모자도 사다 주었다.

하지만 용태는 회복되지 않았고 내 근무시간에는 아니길 바랬지만 나이트근무를 시작하기 전 라운딩 시 확인한 용태의 상태는 임종을 앞두고 있었다. 힘든 호흡을 하며 잠들어 있는 용태의 옆에 망연자실해 앉아있는 용태엄마와 아빠에게 “용태가 다 듣고 있으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해 주세요. 너무 가까운 시간이예요.”라고 용기 내어 엄마에게 말해주었다. 엄마와 아빠는 이후 용태의 귀에 대고 “사랑한다. 사랑해.”라고 계속 말해주었고 잠시 후 용태가 눈을 뜨고 엄마, 아빠와 잠시나마 얘기도 하고 좋아하던 음료도 마신 후,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그렇게 떠났지만 이 시간은 엄마와 아빠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이 짧은 에피소드로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는다는 교과서의 내용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고, 간호사는 이 소중한 시간을 가족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나의 간호에 깊이 새겼다.

이 시절의 나는 내가 돌보는 환자들에게 가족의 의미를 두지 않았나 싶다. 나의 소중한 환자들과 이별하며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자책하고... 뒤돌아 20대의 나에게 토닥여 주고 고생했노라 위로해주고 싶다. 이 힘든 시간들은 나의 간호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는 시간들이었다.

#3. “짜증나”의 의미를 이해하다

“짜증나.”라고 말하던 선배의 한마디가 깊이깊이 이해되었다.

내가 보던 소중한 환자들의 반복되는 죽음은 힘들었다.

이 죽음을 깊이 애도할 시간도 없이 가족들을 진정시키고 행정적 절차를 재빨리 정리하고, 임종간호를 수행하고 환자를 떠나보낸다.

내가 좋아하고 회복을 간절히 기도하던 나의 환자를 떠나보내는 과정은 나의 몸과 마음을 지치고 힘들게 하고 있었다.

나는 임상을 떠나기 위해 대학원 석사과정을 시작하였고 졸업논문의 제목은 “암병동 간호사의 임종간호 스트레스와 교육요구도”였다.

되돌아보면 임종간호가 힘들어요!! 라는 나의 외침이었다.

4. 의미를 부여하다

“선생님이 돌보며 임종간호 한 환자들이 선생님을 위해 천국에서 기도 해주고 있을 꺼예요. 그리고 훗날 천국에 가는 날이 오면 모두들 마중을 나와 주실 꺼예요.”

논문작업을 하며 투덜거리던 나에게 지도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나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이후 임종간호를 할 때면 항상 이 말씀이 떠오른다.

‘이렇게 많이 아프고 힘든 고통을 겪고 천국에 가시는데 날 위해 기도를 해주신다니...’

함께 임종간호를 하는 후배간호사의 경직된 표정에서 나의 신규시절을 본다.

내가 “○○○선생님. 이 환자분이 천국에 가서서 우릴 위해 기도해 주신대요.”라고 얘기해 주고 있었다. 환자의 죽음에 힘들어하던 나의 간호에 의미가 생기기 시작했다.

5. 소중한 시간의 의미를 알려주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환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보이는 것 같다.

얼마전 일어난 일이다.

임종기로 1인실로 이실 오신 노인환자분이 계셨다.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하며 가족들도 임종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막상 환자의 심장박동이 느려지며 임종 순간이 임박해 지자 딸은 울부짖으며 담당의사와 면담 끝에 심폐소생술을 하겠다고 결정하였다.

그렇게 몇 분의 심폐소생술을 진행하였고 회복되지 않자 다시 면담을 한 후에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보호자는 이 힘든 순간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며 울부짖고 있었다.

마침 지나가시던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보호자분을 위로하며 기도를 해주셨고 힘든 순간을 함께 해주셨다.

수녀님의 따뜻한 말씀이 아직도 내 마음속엔 깊이 남아 있다.

“어머님! 우리 소중한 어머니. 한평생 자녀분들 키우고 살아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어머님께서 가시는 곳은

고통도 슬픔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자녀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느님 품안에서 평안을 누리세요. 어머님 한평생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울부짖던 딸은 진정되었고 “1인실로 오셔서 4일간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가진 것도 덤으로 받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따뜻하게 간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심폐소생술로 정말 어수선하고 정신없던 현장은 이렇게 정리되었고 나머지 가족들도 와서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환자분께 사랑한다고 얘기하며 시간을 나누었다. 바쁘고 벅찬 하루였지만 아름답고 기억하고 싶은 임종간호의 한 페이지로 남았다.

#6. 나의 임종간호

병원에 입사한지 이제 20년이 조금 넘는다.

신규간호사 시절 환자의 아픔에 눈물부터 쏟던 나는 이제 무게감 있는 마흔 중반에 접어든 베테랑 간호사, 파트장 (Unit manager)이 되어있다.

누군가 나의 임종간호는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간호사로서 할 수 있는 숭고하고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환자가 생을 마무리하는 힘든 호흡과 통증을 감내하는 순간, 이를 보는 가족들의 힘든 순간이 소중한 시간임을 알려주고 성직자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여 영적 돌봄을 함께 하며 죽음의 순간, 세상에서의 수고로운 짐을 털고 천국의 빛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간호사.

여전히 버겁고 힘든 순간이 있고 지치기도 하지만 나에게 천국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고 생각하며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훗날 나의 생이 다하는 순간에도 “수고했노라. 무서워말고 밝은 빛을 따라 하느님 품안으로 가서 안기라”고 얘기해 주는 누군가가 함께 하길 바래본다.

여우와 고슴도치

오지연 경희의료원

나는 모태신앙의 기독교인이지만, 1년에 1~2번씩 점을 보러간다. 주역을 공부하기도 하고, 사주풀이도 종종 보러간다.

나의 사주에는 흙, 토의 기운이 없다.

흙, 토의 기운은 모든 만물을 포근하게 품어주기 때문에 산 부인과나 소아과가 적합하다.

또한 흙, 토의 기운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도와주고 중재하는 오행五行의 중앙에 속한다. 어디서나 일도 잘하고, 남과 마찰이나 충돌을 일으키는 일도 거의 없다.

흙, 토의 기운이 많은 선배언니는 어느 병동으로 전보를 가던 그 부서원들의 결혼, 임신, 출산이 정신없이 생긴다.

반면, 나는 흙, 토의 기운이 없기에 어느 부서를 가든 선배 언니와 같은 경험은 거의 하기 어렵다. 거기서 끝이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부서원들의 유산을 경험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주오행을 완전히 믿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이런 나의 약점?을 발설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와 만나는 부서원들이 더 안타깝고 불쌍해지기도 한다.

결혼을 하면 반드시 임신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임신을 원하는 사람이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는것도 하나의 복이라는 생각에 더 그런 생각이 든다.

올해 초, 전보 후 처음 면담하는 자리에서 올해 목표가 무엇 이냐고 물었더니 작년에 유산을 해서 올해는 임신하는게 목표라는 부서원을 만났다.

“나랑 있으면 임신이 안되는데...” 이걸 말할 수도 없고... 우야면 좋노.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작된 기도였다.

“점 보러 다닌거 정말 죄송해요. 무지몽매한 인간이니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라고 회개도 하고, “기도도 많이 안했으니 좀 들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뭐 언제 내 기도 들어 주셔는 봤나요?”하고 협박도 해보고 “그래도 한번은 들어 줘도 되지 않나요?” 회유도 해보고...

날 잡아 물 떠놓고 기도한 것은 아니고, 출근길에 그 부서원이 근무하는 날이면 택시타고 가는 20분 동안 했다.

솔직해지자면, 부서원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은 몇 초였고, 나머지는 로또 1등 당첨과 관련된 기도였다. 하하하.

나는 상당히 다정한? 이기적인 인간이다.

일이 바쁘기도 했고, 정신없이 지내던 어느 날.

그 부서원이 근무여서 지나치며 “○○선생님. 나는 선생님을 위해 기도해요.”라고 말을 했다. 그랬더니, 그 부서원이 갑자기 눈이 벌개지면서 “선생님.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다고 다른 선생님이 얘기해주셔서 들었어여. 정말 감사해요.” 하는 것이었다.

난 울릴려고 말한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나의 기도 프로젝트가 계속되는 와중에 부서원이 6개월만에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다. WOW!

(와~ 로또 기도는 10년을 했는데도 안들어주면서... 와~ 무심한 하늘님.)

그 부서원은 남편이 아닌 나에게 먼저 임신소식을 알렸다고 한다. 내가 부서장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제일 먼저 알려야 할 것 같았다고, 전화기 너머로 울먹거리며 말을 했다.

부서원은 작년에도 유산을 했던터라, 초기에 유산 징조가 보여 병가 2주를 받았는데, 고맙게도 매일같이 나에게 본인 상태가 어떤지 문자로 보고를 해주었다.

또 정말 솔직해지자면, 가장 먼저 태명을 물어보고, 태명부터 지으라고 강한 압력을 넣고 매일 물어본 내 탓이기도 하다.

아이의 태명은 튼튼이다.

그 이후로 부서원의 이름은 나에게 튼튼이 엄마가 되었다.

자꾸 불러줘야지 튼튼이가 내 곁에 있을 것 같았다.

사람은 말한대로 된다. 나의 철학 중 하나다.

토의 기운이 없는 나로써는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부서원들은 나의 이런 말과 행동이 부담스러웠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튼튼이를 우리곁에 잘 있게 해주어야 할 막중한 나름의 사명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고슴도치는 하나밖에 모르지만, 여우는 두루 알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인 킬로코스가 처음 사용한 말이다.

나는 부서장으로써 모든 부서원을 두루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튼튼이 엄마에게 만큼은 다정한 고슴도치 부서장이 되고 싶다.

오늘도 나는 출근하는 튼튼이 엄마에게 “어젯밤 우리 튼튼이 잘 자고 왔는가?” 하고 묻는다.

이젠 다른 부서원들도 나의 이런 팔불출 같은 고슴도치 행각을 그려려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또 우리 부서원들이 예쁘다.

부서장은 고슴도치이기도 여우이기도 해야한다.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통하게 되어있다.

나는 이번 일로 그것만큼은 확실히 하나 배웠다.

반백살 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배울게 많은지...

다음번엔 로또 1등 당첨 기도 프로젝트를 쓰고 싶다. 진심으로. 하하하.



중환자실 간호사로 벌써 7번째 봄을 맞이했다. 올해는 봄의 태동을 느끼기도 전에 시작된 전공의 의료공백 상황으로 인해, 병원 내 간호사들의 역할에도 지속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듯하다. 내가 일했던 중환자실은 특성상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전원 보내는 일이 거의 없다. 이곳은 각종 치료 끝에 장기이식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우리병원 새로운 부서에서 병동환자의 전동과 각종 시술과 검사를 위한 이송, 그리고 전원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하루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전원’이 수없이 이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환자를 전원 보내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 싶다. 데이 근무 중에 응급실에서 급하게 전원을 가야 하는 ICH(Intra Cranial Hemorrhage, 두개내 출혈)환자가 있어 30분 내로 출발할 수 있냐고 전화가 왔다. 우리 팀에서는 현재 전원만을 담당하는 근무변이 있는데 설령 전원을 담당하는 근무자가 부재중이었어도 우리 팀에서는 누구라도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말 그대로 ‘응급’이었으니 말이다. 환자 파악을 마치고 나와 같은 부서에서 온 선배간호사와 구급차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kit를 챙기고 만반의 준비를 한 뒤 응급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간단하게 응급실에서 환자에 대해 다시 한번 구두로 인수인계를 받고 환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정했다. Pupil(동공)은 prompt(양쪽 모양이 동그랗게 같고)하였고 이제 출발할 일만 남았다. 보호자에게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걱정이 되시죠? 저

희는 안전하게 ○○○병원까지 이송을 도와드릴 간호사 ○○○, ○○○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서둘러 구급차에 올랐다. 우리는 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우선 순위를 세웠다. 도착 전까지 신경학적 변화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보기로 했다. Pupil의 양상이 변하지는 않는 지 자주 사정하기로 했고 목이 꺾여 Jugular venous return(경정맥 환류: 경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환류되는 혈액)이 방해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Head elevation 30도 이상을 유지하며 이송하기로 계획을 마무리하고 그렇게 응급전원 길에 올랐다. 가는 동안 환자의 산소포화도는 92~93% 정도로 Ambu-bagging을 하면서 갔다. 나는 Ambu-bagging을 하고 다른 선생님은 흡인을 했다.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했다. “환자 산소포화도 오르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흡인 준비되면 말씀해주세요.” ‘손발이 척척 맞는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 같다. 중환자 간호팀 출신들로 이루어진 우리 팀에서 누가 갔어도 의지할만하고 든든한 존재들이었겠지만 같은 부서에서 온 선생님과의 협업은 나를 심적으로도 참 편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타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환자에 대해 인수인계를 하고 마지막으로 보호자에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치료 잘 받으세요.”라고 위로의 말을 남기고 병원으로 복귀했다. 중환자를 간호하는 우리의 업무는 이제서야 뜨거운 열기를 내뿜기 시작한 5월의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구급차라는 장소만 변했을 뿐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장소를 뛰어 넘어 중환자 간호의 연속성이 유지되어 첫 번째로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었고 나와 내 동료는 전문적 간호를 수행할 수 있음에 다시금 감사할 수 있었다.

움직이는 구급차에서 임종간호를 제공하다

김요섭 서울아산병원



사실 위와 같은 응급상황을 제외하면 기대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 암 환자들을 연고지 병원으로 전원 보내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전원을 준비하며 느낀 점은 말기 암 환자들을 대할 때 첫 한마디를 건내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이다. 내가 전하는 일련의 말들이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올 지 감히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NSCLC(Non Small Cell Lung Cancer: 비소세포 기관지암중)의 50대 말기 암, 남성 환자가 연고지인 대전에 있는 병원으로 전원이 결정되어 병동에서 연락을 받고 올라갔다. 환자를 꼼꼼히 사정했고 보호자에게 전원에 대해 설명을 하려는 순간 보호자가 나에게 “바깥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라고 말을 건넸다. 나는 병동을 벗어나 치료실에서 다시금 전원 동안 일어나는 응급상황에서 어떠한 처치도 원하지 않는지 등을 보호자에게 확인 후 담당의와 의사소통을 할 참이었다. 보호자는 슬픔에 가득 찬 표정이었지만 세상 누구보다 단호하게 환자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어떠한 처치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참 마음 아픈 일이다. 그러나 감히 생각 하건데 어떠한 이도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을 것이기에 다시 한번 보호자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야만 했다. 나는 담당의와 이 상황에 대해 다시 확인했고 나는 이 환자의 존엄을 보장하며 고향까지 안전하게 이송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남은 여정을 보낼 수 있도록 동반하는 즉, 환자의 안위를 살피며 함께하는 임종간호를 수행하는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지지체계가 되어주자고 생각했다. 고향을 향해 달려가는 구급차는 지칠 줄을 몰랐다. 구급차에서 나와 보호자 그리고 환자는 그 거리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다. 보호자는 환자의 손을 계속 어루만지며 눈물을 계속 참고만 있었다. 나는 휴지를 건네며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호자분, 슬프면 우셔도 돼요, 슬픔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실거예요. 눈물의 의미가 죄책감일 수도 있고, 미안함일 수도 있고 제가 그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 보호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역시 환자분과 보호자 분을 위해 매우 중요해요.” 사실 아주 조심스러웠다. 보호자는 아무 말 없이 평평 울기 시작했다. 그렇게 30분 가까이 울고 나서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동생 앞에서 한 번도 울거나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강한 누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보호자는 울고 그치기를 반복하며 동생에게 대전으로 향하는 내내 내면의 독백을 쏟아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일방적인 독백이 아닌 둘의 대화인 것처럼 보였다. 말하지 못하는 환자가 마치 대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무사히 대전에 도착해서 타 병원 의료진에게 환자 인수인계를 마치고 서울로 되돌아가기 위해 구급차에 올랐다. 비좁았던 구급차에도 나에게 한숨을 돌리라는 것 마냥 여유가 생겼다. 그렇게 출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보호자가 나에게 와서 내 손을 꼭 잡으며 ‘너무 고맙다고 큰 힘이 되었다고’ 연신 고맙다며 허리를 숙이며 인사하였다. 참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다. 환자가 호전된 것도 아니고 이 세상과의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잠깐 내가 동행한 것뿐인데, 이렇게 진심을 담은 감사의 인사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참 아이러니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가는 길에 나의 작은 흔적이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간호사로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

아마도 7-8년 전이었을 것이다. 호스피스 실습을 1주일간 용인에 있는 꽤나 큰 규모의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거기에 계시던 수녀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임종과정은 아이가 태어나 세상으로 나오는 것 같다고 하셨다. 각종 관을 통해 영양을 받는 것은 태아가 어머니로부터 탯줄로부터 영양을 공급받는 것과 비슷하고 아이가 어둡고 좁은 길을 머리를 들이밀며 질식사할 것만 같은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야 새로운 세상을 본다고 말이다. 이 글을 쓸 수 있게 영감을 준 이 시간에도 다른 세상이 보내는 또다른 빛을 향해 어둡고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 환자들에게 감사하며 이 글을 마치고 싶다.



초심을 잃지 않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이아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나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간호사가 됐다.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께 반찬을 만들어드리거나 집 정리를 도와드리는데 작은 도움을 드리며 행복해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최고의 미덕이라 여기며 자랐다. 나도 어머니처럼 타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어렸을 적부터 유난히도 오지랖 넓게 여기저기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다녔다. 그러다 학창 시절, 도움반 도우미로 활동하던 중 내가 도움반 친구를 응급 상황에서 구한 적이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위기탈출 넘버원’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즐겨 보았는데, 그때 보았던 응급처치 매뉴얼을 떠올려 과호흡이 온 친구에게 종이봉투를 대준으로써 안정을 되찾게 해줄 수 있었다. 이를 본 학교 보건선생님께서 나에게 간호사가 되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하셨다.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던 나에게 보건선생님의 말씀은 나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였다.

“내가 왜 그동안 간호사에 대해 알아보지 않았을까? 내가 가진 역량을 발휘하여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 바로 간호사가 아닌가! 나는 간호사가 되고싶다!”라는 생각이 몇 날 며칠 어린 나의 가슴을 힘차게 뛰게 만들었다.

그렇게 나는 원하던 간호학과에 진학해 간호사라는 꿈에 한발짝 성큼 다가갔다. 하지만 막상 대학생이 된 나는 간절한 꿈을 향해 달려가기보다 즐거운 캠퍼스 라이프에 취해 학업을 게을리했다. 그런 나에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 사고가 닥쳤다. 바로 교통사고로 인해 왼손잡이였던 내가 왼쪽 손가락의 기능을 잃게 된 것이었다. 손가락의 기능을 되찾기 위해 나는 9번의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며 오랜 기간 재활치료를 받게 되었다. 담당 의사선생님은 큰 차도를 보이지 않자 손을 많이 사용하는 간호사라는 직업을 포기하기를 권하셨다. 나 역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장기간 치료에 지치고 지쳐 진로를 바꾸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차 커지고 있었다. 특히나, 오랜 병원 생활에서 가장 나를 지치게 만들었던 것은 수술과 재활로 인한 통증도,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는 불편함도 아니었다. 그건 바로 지독한 ‘외로움’이었다. 당시 코로나19로 상주보호자 1인 외에는 면회가 전면 금지되었다. 수술 당일 외에는 부모님도 옆에 계셔주지 못해, 나는 입원 기간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병원에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처음엔 철없게도 마치 내가 영화 속 비련의 여주인공이 된 마냥 병원 생활이 재밌었다. 하지만 그건 채 3일도 가지 못했다. 주변엔 나처럼 아파서 자신의 몸 하나 챙기기도 벅찬 사람들 뿐이라, 다른 환자들에게는 다가가기 어려웠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말하기를 유난히도 좋아했던 나는 병원 생활이 길어지자, 말 한마디 못하는 날이 많아질수록 턱 끝까지 차오르는 외로움에 밤마다 병원 화장실에서 꼭꼭대며 울곤 했다. 그런 내가 병원에서 보내는 하루 중 가장 좋아했던 시간이 간호사선생님이 라운딩을 도는 시간이었다. “혈압 짚게요.”라는 말에 “네,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좋았고, “어제는 잘 잤어?”라는 질문에 “형~ 어제 옆에 환자분이 코 골아서 잠 못 잤어요.”라고 칭얼댔을 때 “아이고, 그랬어? 아픈데 잠도 못자서 어떡해.”라는 선생님의 공감을 받는 게 너무나 기뻐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말을 걸어주시는 간호사선생님이 너무나 좋았고, 간호사선생님과의 대화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어 병원 생활을 버티는 힘이 되었다. 간호사선생님들의 돌봄을 받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다시금 커져갔다. 나도 나를 돌봐주시던 간호사 선생님들처럼 병원에서 홀로 외로이 질병과 싸우고 있을 환자들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더 걸어줄 수 있는, 그런 간호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다시금 차오른 나의 꿈과 희망은 나를 변화시켰다.

나는 본격적으로 재활에 매진했다. 하지만 이미 오랫동안 마르고 유착됐던 나의 근육과 힘줄은 아무리 노력해도 제 기능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내가 선택한 방법은 오른손잡이가 되는 것이었다. 20년이 넘도록 왼손잡이로 살아온 사람이 오른손잡이로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간호사가 되어야겠다는 확고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개강 직전이 되어야 마침내 오른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힘들었던 오랜 병원 생활과 휴학 생활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올 수 있었다. 개강 후에는 오로지 공부에만 매달렸던 것 같다. 똑똑한 간호사가 되어야 환자들을 더 잘 돌볼 수 있고,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정말 열심히 학업에 임했다. 실습에 나가서도 누구보다 바빠 움직이며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실습 중 나는 나의 간호 좌우명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실습을 하며 조금의 여유가 생길 때마다 환자들을 찾아다니며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눴다. 그러면서 나는 그동안의 병원 생활이 나에게 큰 자산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2년간 환자로 살았던 나는 그 누구보다 환자들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있었고, 어디에 주사를 놓았을 때 얼마나 아픈지, 음식이 얼마나 힘든지, 마취에서 깨어나는 것이 얼마나 졸립고 고통스러운지, 병원 밥이 얼마나 지겹고 맛이 없는지, 옆 환자가 시끄러운 게 얼마나 짜증나는지 등등 내가 실제로 겪었던 경험들은 내가 환자들에게 진심을

다해 공감해 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그 결과 환자분들은 겨우 실습생이었던 나를 참 많이도 예뻐해 주었고, 남다른 라포를 쌓게 되어 내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인 “학생이 있어서 병원 생활이 외롭지 않았어. 고마워.”라는 말을 해주시기도 했다.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집에 가는 길에 눈물을 흘리며, 나 자신을 고생했다며 꼭 끌어안아 주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렇게 나는 성실히 학교생활을 하고, 많은 것을 느끼면서 간호수업을 했고, 2년 뒤 졸업해 지금의 병원에서 진짜 간호사가 되었다.

간호사가 된 내게, “간절했던 꿈을 실현하고 있는가?” 라고 누군가 물으면 “정말 부끄럽다.”고 대답하겠다. 신규간호사인 나는 나의 담당 환자들과 짧은 시간이라도 대화를 나눌 여유가 없었다. 해야 할 일이 밀려있을 때, 대화가 길어지면 나도 모르게 초조해져 “네, 알겠어요. 확인해볼게요.”라고 말하며 황급히 자리를 뜨기도 했다. 그리고 그런 날이면 집에서 홀로 벌써 초심을 잃은 거라며 한참을 자책하고 환자분께 죄송해 했다. 하지만 업무 로딩은 바쁜 병원 현장에서 자칫 큰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 조율이 필요했다. 오랜 고민 끝에 내가 스스로 다짐한 것은 첫째로, 라운딩 때만이라도 지난 밤 사이의 해프닝을 묻거나, 불편한 곳이 없는지 물어보고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공감을 해드리자는 것이었다. 또, 둘째로는 환자가 나에게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면 긴 말보다도 손을 잡아드리거나 어깨를 쓰다듬어 드리며 위로를 드리는 것이었다. 나는 지금 바쁜 업무 속에서도 이 두 가지 스스로의 약속은 꼭 지키며 근무하고 있다. 긴 시간 이야기를 들어드릴 수는 없지만, 한 마디의 말이라도 더 걸어주고 위로와 도움이 되어 드리려 노력하고 있다.

언젠가, 내가 간호 업무에 익숙한 숙련된 간호사가 되면 그때 정말 환자와 긴 대화를 나누며 환자와 함께 울고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간호사가 되자고 내 자신을 격려한다.

간호사를 처음 꿈꿨을 때처럼, 중간에 멈췄다 다시 간호사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갔을 때처럼, 그때의 간절했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초심을 기억하는 간호사가 되자고 나는 오늘도 다짐하며 출근한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에는 2가지의 적이 있다고 했다.
고통과 지루함.

내 행복의 적은 무엇일까?
바로 CPR과 소외감이다.

내가 일하는 병동은 수식어가 많다.
대표적인 수식어는 다음 2가지다.
원내 ICU 외 CPR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동.
코로나 시기 중증 환자 음압 병동.
원내 병상 가동율 1위 병동.

그 외로는...
적신호 사건 1등 부서.
근접오류 보고 꼴찌 부서.
PDA 사용률 꼴찌 부서.
CS 꼴찌 부서...

첫 번째 나의 행복의 적은 CPR이다.

내가 행복의 적으로 CPR을 꼽은 것은 매우 극과 극의 감정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CPR상황에서 잠시라도 ROSC 되는 그 순간은 정말 짜릿하다.

같이 근무하는 멤버들끼리 손발이 착착 맞아, 환자가 ROSC 되면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 그러나 CPR상황이 지지부진하고 길게 늘어지는 순간,

“아... 나는 준비가 안 되었는데, 이렇게 환자분이 돌아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주위가 갑자기 고요해지고 적막해진다. 이럴 땐 바로 맥이 빠지면서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CPR이 무섭지 않다. 그리고 CPR시 대처도 매우 잘한다는 평을 듣는 편이다.

무서운 건 CPR 상황에서의 믿고 의지해야하는 동료들의 함(숨)이다.

최근 우리 병동은 엄청난 인력의 loss를 겪어내야 했다.

행복의 적

곽한나 경희의료원



많은 간호사들이 교육전담간호사, 업무전담간호사, 진료지원간호사로 이동했고, 그들이 빠져 나간 자리로 푸릇푸릇한 신규간호사들이 자리를 메꾸었다. 이들은 CPR상황을 겪은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

나는 그들과 근무를 하는 날이면, 언제나 무언의 긴장감을 느낀다.

두 번째 나의 행복의 적은 소외감이다.

나는 평화주의자이며, 안정지향자이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 나, 속해있는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것을 매우 슬퍼하고 불안해한다.

우리 병원은 카카오톡과 같은 기능의 원내 채팅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 교수님들과 환자에 대한 notify도 가능하고, 피드백도 받을 수 있으며, 때로는 동료 간호사들에게 힘내라는 말도 전할 수 있다.

카카오톡처럼 역시나 프로필 사진을 업데이트 할 수 있다.

나의 동료가 먼저 말했다.

“요즘 유행하는 티니핑으로 우리 병동 식구들 모두 사진 한번 걸어볼까? 교수님들이 아 이 병동식구들은 다 이 만화 캐릭터를 했구나하고 알 수 있도록… 특이하고 재미있지 않을까?” - 티니핑은 SAMG 엔터테인먼트가 만든 3D 애니메이션으로, 가공의 왕국 ‘이모션 왕국’의 공주인 ‘로미’를 주인공으로 하며 가공의 요정 종족들인 ‘티니핑’을 소재로 하는 만화 영화이며, 가히 여러 개의 요정핑들이 많아 모든 핑들을 다 구입하면 부모들이 파산할 수도 있다하여 ‘파산핑’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 동료의 제안에 나는 흔쾌히 동의하였고, 사진을 바꾸어 두었다.

그러나 나는 후배들이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을 것이고, 병동 캐릭터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알음알음 대화를 한 동료들과 변경하기 시작했다.

병동에서는 신규간호사가 증가하자 CPR 오답노트를 제작하고, CPR 대처의 습관화를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나도 몇 년차이며, CPR 경험이 많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설명하고, 직접 수행하는 것을 알려주고 실제로 해보도록 가르친다.

처음에는 익숙치 않았던 skill도 여러 번 해보면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후배간호사들에게 자주 직접 해보도록 시간을 준다.

CPR 실습 후 퇴근하던 중 어느 후배가 “선생님 ○○톡 사진은 왜 ○○핑이예요? 저도 XX핑으로 바꿔도 되나요?”라고 물었다. 나는 흔쾌히 변경해도 된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물어보았다.

본인은 일도 잘 못하는 것 같고, CPR도 잘 대처하지 못하니 티니핑으로 바꾸는게 이 병동의 일원이라고 하기엔 좀 모자라는 것 같아 걱정되었다고 했다. 후배가 내가 행복의 적은으로 생각하는 소외감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 나는 갑자기 후배가 너무 짠해졌다.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말했지만, 후배의 갈길 잃은 모습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어? XX핑으로 바꾸었네? 귀엽다~. 애 이름은 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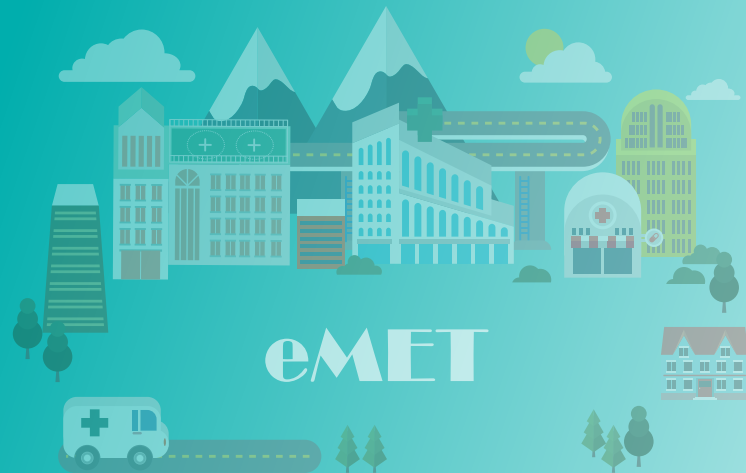
이런 하찮은 질문이 그 후배에게 힘이 될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그 후배는 나와 근무할 때면 같은 티니핑 가족의 일원으로 일한다는 생각을 조금은 할 것 같다. 그리고 CPR 상황에서도 나와 같이 했던 것들을 잊지 않으려 노력할 것 같다.

오늘은 출근하면 XX핑으로 사진을 바꾼 후배에게 사소한 질문부터 해봐야겠다.

적어도 오늘은 후배가 소외감에서 해방되어 행복한 날이 될 것 같다. 그런 후배를 바라보는 나도 행복하길.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를 읽다

김유진 서울아산병원



온 병원이 코로나19로 마비되던 시기를 벗어나는 게 싫었는데 ‘전공의 의료 공백’이라는 새로운 어려움과 환경에 맞닥트렸습니다. 결원 지원 업무팀에서 일하던 저는 당장 내일부터 환자의 안전한 원내 이송 지원 업무팀 eMET(Extended Medical Emergency Team)에 지원 결정을 듣고 현재 상황이 응급하다는 걸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원내 이송은 환자를 안전하게 검사·시술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목표를 이해하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어쩌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금 설레이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 책상을 들고, 컴퓨터와 랜선을 설치하면서 우리의 업무 공간을 채워가는 일을 제가 언제 또 해볼까 싶기도 했습니다.

원내 이송 시 예상되는 응급상황과 대처방법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삼삼오오 모여서 자유롭게 나누고,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각종 매뉴얼과 교육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어디에서도 해보기 어려운 업무였기에 자율적으로 만들어가는 업무에 더 애착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동과 검사실 간 이송에서 시작한 저희 업무는 점차 수술장, 외래, 진정검사 그리고 전원으로까지 확대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처음에는 이송 업무 자체가 어색하고 미숙했지만 이제는 병동 간호사님들이 저희 팀을 응원해주시고 안전하게 환자를 이송해주어서 고맙다고 인사해주셔서 뿌듯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과중환자실에서 주로 일을 했어서 다른 외과나 심장내과, 신경과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근무한 선생님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게 참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1분 단위로 활력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인공기도가 있는 중환자를 보는데 익숙해지니, 병실 복도를 걸어다니고 본인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병동 환자들을 마주하면 새롭기도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상태가 호전되어 전동가는 경우를 많이 봤지만 병동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는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병원생활의 한 편을 본 것 같아 신기했습니다. 오랜 기간 중환자실 생활을 하시던 환자분들을 병동에서 뵈었을 때는, 괜히 저 혼자 내적 친밀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낮을 가리는 편이지만 낮선 곳에서 만나다 보니 반가운 마음에 저 기억나시냐고, 그동안 병동에서 잘 지내셨냐고 여쭙보기도 하며 나의 간호를 다시 자랑스럽게 새겨보기도 하였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명의 환자들을 이송하다보니 모든 분들을 다 기억하진 못하지만, 유독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하는 역할에서 늘 떠올리는 환자분입니다. 위암으

로 치료를 받다 요양병원에 전원을 가게 된 환자였는데, 혈압이 불안정하고 대사성산증이 진행되는 중이었습니다.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분이시긴 했지만 서류 작성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전원가는 도중 상태 악화가 발생 될까 저도 보호자도 많이 걱정했습니다. 구급차 뒷좌석에 앉은 따님은 요양병원으로 가는 내내 울고 계셨고 저는 불안한 마음에 환자가 눈을 감으실 때마다, 잡은 손에 힘을 주고 말을 걸었습니다. 통증으로 인해 모르핀을 지속주입 중이라 투약을 중단하기가 힘들었을텐데, 그때마다 환자분이 정말 환하게 웃으시면서 “잘 봐줘서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먼 곳까지 가게 한다면 간호사님 고생 많으시다고... 임종기의 환자가 오늘 처음 본 낯선 간호사에게 오히려 위로의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솔직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말은 제가 먼저 해드려야 했는데... 제가 중환자실에서 봤던 임종환자들은 인공기도를 갖고 있거나 갑작스런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런 경험이 부족했다는 핑계를 대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있는지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요양병원에 잘 도착하였습니다. 직접 병실까지 이송을 도왔고 해당 병실을 나오려다 용기 내어 다시 들어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환자분 무사히 도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자분도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어쩌면 짧은 한마디 말이었지만, 저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병원에 돌아와서 환자분과 있었던 이야기를 근무조 선생님들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막 전원 업무를 시작하던 때였기에 저희 모두가 환자와의 마지막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었던 듯 합니다. 우리는 전원환자간호라는 목적을 함께 나누게 되었고, 덕분에 임종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급한 의료현장에서 더 응급하게 만들어진 간호사 중심의 팀이지만, 이제 우리는 환자가 입원해서 검사를 하고, 시술과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회복되어 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그러다 마지막에 퇴원하기까지 이 모든 환자의 여정을 함께하는 팀입니다.

이 팀은 서울아산병원 eMET!!입니다.

언젠가 한 eMET 선생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여기는 작은 리더들이 많은 부서인 것 같아요. 각자가 간호사로 자신있는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잘 하는걸 더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선생님들의 다정한 마음이 바탕이 되었기에 이 모든게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간호사로 주어진 역할을 찾아가는 eMET와 동행하는 환자들의 여정에 새로운 가치를 꼭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저도 마지막까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합니다

조민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근래에는 현대인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지식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덕분에 과거와 비교하면 정신 건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간호사로서 일하고 있는 내게 근무 부서를 물어와 “정신건강의학과요.”라고 답하면 대개는 호기심에 가득찬 얼굴 반, 놀란 얼굴 반이다.

그도 그럴 것이 나조차도 대학 생활 중 정신 건강 간호학 첫 수업에서 교수님을 마주하고 “교수님은 뭔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내 마음을 읽는 것 같아요.”라며 동기들과 수군거렸던 기억이 생생하다.

나의 병원 생활 첫 시작은 ‘혈액종양내과’이다. 쉼 없이 쏟아지던 처방들과 환자 상태에 따라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었던 내과 병동 특유의 분위기 속에서, 나는 제법 빠릿빠릿한 간호사로 성장했다.

근무 시간 동안 미션을 완수하듯 시간에 쫓겨가며 정신없이 일했던 내가, 처음 정신건강의학과로 부서 이동을 왔을 때는 정말 모든 것들이 충격적이었다.

병동에 들어와 ‘개방 병동’이라 불리는 병실을 따라 복도를 걸으면 간호사실과 ‘보호 병동’이 나온다. 환자들을 관찰하는 CCTV, 안전유리로 보호된 스테이션, 보호 병동에 들어가기 위한 철문 등 신기한 눈으로 병동 곳곳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병동을 탐색 중이던 나는 곧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첫 인계를 듣게 되었고 또 한번의 충격을 받게 되었다. 금일 시행된 lab과 각종 검사, 그에 따라 이루어진 처치,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환자 상태 등 컴퓨터 화면을 뚫어저쳐 쳐다

보던 인계에 익숙해져 이곳에서의 인계가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스테이션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컴퓨터와 탁자를 두고 서로 마주 보며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환자들의 상태를 주고받았다.

여담이지만 부서 이동 후 함께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단어 선택과 말투가 상당히 나긋하다고 느껴졌고 서로의 의견을 물어보며 경청하는 것이 너무도 감사한 환경이었으며, 보통 “이건 왜 이렇게 했어?”라고 물을 법한 질문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고 물어왔던게 아직도 낯간지러울 만큼 기분 좋은 충격이었다. 속으로 ‘정신건강의학과는 환자뿐만이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 간호사의 정신 건강도 이롭게 해주는 곳인가?’라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 걱정스럽고 부담이 됐다.

인계가 끝나고 “내가 이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꼬박 감춘 채 스테이션으로 나왔을 때, 누가 봐도 ‘나 여기 처음 왔어요.’라고 적혀있는 나를 발견하고 환자 한 명이 옅은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넸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루에 열번도 넘게 주고 받던 그 흔한 인사말에도 나는 선뜻 답하지 못했다. 이제 와 돌이켜보면 나조차도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편견에 휩싸인 사람이었다.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 판단해 예측되지 않고,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나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준 환자를 그저 바라만 보았다.

아무 말도 내뱉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는 나를 뒤로하고 다른 선생님께서 아무렇지 않게 환자를 응대했다. 잠은 잘 잤



는지,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낼 계획인지 등 그저 평범한 일상 대화를 나눈 뒤, 스테이션을 떠나는 환자를 보며 아차 싶었다. 어느 부서보다도 사람 대 사람으로 환자를 마주하는 이곳에서 편견과 두려움은 배움과 성장을 늦추기에 딱 좋겠다 싶었고 쉽게 쌓아왔던 편견인 만큼 쉽게 깨뜨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정신건강의학과를 한마디로 표현하려면 ‘바다’ 같은 곳이다. 이곳에서 간호사의 주 업무는 환자를 그저 관찰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숨겨지지 않는 증상들도 많고,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증상이 많아 유심히 관찰하고 또 관찰해야 한다. 잔잔한 바닷속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생물들이 그 안에서 생태계를 이루고 있듯이 병동 내 환자들도 서로 상호작용하며 작은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진단명, 성별, 연령대 등 다양한 구성에 따라 그 분위기가 좌지우지되기도 하고 그 속에서의 관계를 통해 환자들의 증상이 호전되기도, 악화되기도 한다. 잔잔했던 바다에 금세 파도가 휘몰아치듯 평화로워 보이던 병동도 눈 깜짝할 사이에 아수라장이 되는 일도 종종 마주한다. 분명 조금 전까지 웃으며 대화를 나눈 환자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가거나, 자해한다거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순식간에 벌어지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 미리 예방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도 환자 상태를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이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의 강도는 재원 환자 수가 아닌 환자의 중증도에서 오게 되는데 재원 환자가 2명뿐이라 한들 정신과적 증상이 심한 환자

한 명이라도 있다면 살얼음판을 걷듯, 출근부터 퇴근까지 긴장한 상태로 있게 된다. 하루 종일, 증상으로 인한 폭언에 시달리기도 하고,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두 눈을 질끈 감게 된다.

모든 간호사가 그렇듯 각자의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행해지는 처치는 다를 수 있어도, 그 모든 행위는 환자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환자의 가장 근접한 곳에서 24시간 그들을 관찰하는 것이 우리의 업무이기에 다른 부서와 비교하면 간호사의 상황 판단에 따라 처방이 좌지우지되는 일들을 종종 마주한다. 이러한 경험 덕분에인지 뚜렷한 목표 없이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중 하나였던 간호사 생활에, 환자가 필요로 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다.

햇수로 4년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면서, 이전 부서에서 건져 온 빠릿빠릿한 능력은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도 많이 했다. 평소 물음표를 달고 사며 “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나에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환자들도 있었다. 참아야 하는 순간들도 많았고, 환자를 기다려 줘야 하는 일들이 많아 나 자신도 힘들었던 적이 많았다. 환자도 이런 내가 버겁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도 여전히 환자와의 면담은 어렵지만 주변에서 ‘차분해졌다’, ‘유해졌다’ 등의 평을 듣게 된 것을 보니 나도 모르게 이곳에 맞춰 변화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부서 이동을 통해 얻게 된 긍정적 변화가 스스로도 체감되어 이제는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로서의 5년 뒤, 10년 뒤의 나의 모습이 궁금해진다.

15년차에 겪는 뒤늦은 성장통

이양완 경희의료원

“A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오늘도 친구가 없어서 혼자 드레싱 하러 왔습니다.”

A님은 전이된 암세포와 방사선 치료 후유증으로 인해 상반신의 70% 정도 피부에 심한 손상이 발생하여 매일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복합 드레싱 대상 환자분이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인턴을 대신하여 올해 4월부터 본원 ‘간호업무지원팀’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면서 만난 드레싱 대상자 중에 손에 꼽을 만큼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잊을 수 없는 환자분.

처음 A님의 드레싱을 하러 갔을 때는 다소 경계심이 섞인 우려의 말씀을 하셨다. “어제 두 사람이 와서 함께 드레싱을 해도 2시간 가까이 걸렸는데, 혼자 어떻게 하려고?” “견드리기만 해도 아파서 조심조심 해야 하는데, 남자 선생님이 가능하겠어?”

그날은 함께 일하는 팀원들이 모두 바쁜 날이기도 했고, 혼자 차분하게 일 하는 것을 좋아하는 개인적 성향 탓에 꽤나 그럴싸한 핑계를 대었다. “친구가 없어서 혼자 왔어요. 그리고 저 수술실 출신이라서 손이 섬세합니다. 믿어보세요.”

그렇게 의구심 가득한 눈빛을 받으며 시작한 드레싱.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고 혼자서 감당하기에 만만치 않은 일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차분하고 꼼꼼히 드레싱을 해나갔다. 1시간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려 드레싱을 마치고나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이마에 맺힌 송글송글 맺힌 땀을 닦으며 재료들을 정리하고 마무리 하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환자와 보호자의 신뢰 가득한 따스한 시선이 눈에 들어왔다.

“여태 다녀가신 선생님들 중에 가장 안 아프고 꼼꼼하게 잘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해요.”

1시간이 넘게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구슬땀을 흘리며 드레싱을 마친 피로감이 한번에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다. 올 해로 15년차 간호사이지만, 그동안 수술실과 내시경실에서 근무를 했었기에 입원 환자나 보호자와 접촉이 그리 많지 않았고 감사 인사를 들어본 일도 별로 없었어서 남모름 뿌듯함이 더했다.

이후로 한동안은 A님의 드레싱을 하지 못했다. 다른 근무조에 편성되어 일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다녀오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그 와중에도 동료들을 통해 A님의 근황을 종종 전해 듣기는 했다. 전신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데 항암을 시도하기 위해 암병동으로 전동을 가셨다는 소식, 드레싱 할 때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소식 등....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A님이 계시는 암병동 드레싱 파트를 배정 받게 되었다. 3주 만에 재회한 A님은 한 눈에 보기에도 이전보다 많이 쇠약해져 있었다.

“오랜만에 오셨네. 그동안 매일 드레싱 할 때마다 병동에 선생님 얘기 많이 했었어요.”

“오늘도 최대한 덜 아프시게, 꼼꼼히 잘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한번의 경험이 있었기에 그 날은 조금 더 수월하게 드레싱을 할 수 있었다. 환자와 보호자의 신뢰가 있다 보니 마음의 여유도 생겼고, 그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드레싱을 해나갔다. 그간 살아온 이야기, 가족 이야기, 질병과 관련된 이야기 등...

“이제 항암 시작하신다면서요? 그럼 입맛 없으셔도 식사 잘 챙겨 드셔야 해요.” “기력 없다고 누워만 계시지 말고 산책도 하고 좋은 생각 많이 하시구요.”

비록 A님의 현재 병력과 관련된 객관적인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았지만, 회복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따듯하고 다정한 잔소리들을 곁들였다.

드레싱이 끝나고 기운 내시라는 인사와 함께 병실을 나서려는 내 손을 다급히 붙잡으시며, 품에서 5만원 권 지폐 한 장을 꺼내 쥐어주셨다.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이거 그냥 받아주면 안될까?”

“아... 이걸 좀 곤란하구요... 다음에 드레싱 올 때 자판기 캔커피나 하나 사주세요 그럼.”

그렇게 지폐를 다시 A님 손에 껴옥 쥐어드리고 병실 문을 나섰다. 그리고 며칠 후 동료들로부터 A님이 항암을 이겨 내지 못하고 끝내 고인이 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또 며칠이 흘러 다시 암병동을 배정 받아 드레싱을 하러 가는 길.

무거운 마음으로 A님이 계셨던 병실을 지나쳐 가는데 낮익은 보호자가 나를 붙잡았다.

“여기 병실 1번 자리에 계시던 분이 선생님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이거 꼭 전해달라고.”

캔커피... ‘감사합니다’라는 글자가 적힌 캔커피.

가슴이 먹먹하여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무언가 울컥하는 느낌이 들었다. 붉어진 눈시울을 숨기고자 고개를 푹 숙인 채 비상계단을 향해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어두운 비상계단 한 구석에 앉아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바보처럼 펑펑 울어버렸다.

지난 15년의 간호사 생활을 돌이켜보면, 나는 그리 좋은 간호사는 아니었다. 단지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일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수술실을 지원 했었던 것만 봐도 시작부터 마음가짐이 올바르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게 시작한 간호사 생활, 처음 7년간 수술실에서는 오로지 나 자신 밖에 몰랐었다. 병원 생활에 적응하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수술실 업무를 익히느라 미처 주변을 살필 여력이 없었다. 다음 7년간 근무했던 내시경실에서 생애 처음으로 프리셉터 경험을 하고 좋은 동료들을 만나 서로 도와 일을 하면서 그제야 함께 땀 흘리며 내 곁을 지켜주는, 너무나 소중한 고마운 동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부서 업무를 하면서 이제야 비로소 환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신규 간호사 때나 겪을 법한 환자에 대한 감정이입 경험을 15년차에 겪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고 뜻밖의 뒤늦은 성장통에 마음이 힘들 때도 있지만 조금 더 따뜻하고 성숙한, 진짜 간호사

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며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환자를 마주하고 업무를 대한다.



나의 몽골 봉사활동 이야기

윤다연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

봉사활동이라는 게 생각보다 참 어렵다.

학교 다닐 때는 입시점수를 위해 의무적으로 그렇게 가다가, 성인이 되고는 언젠가 한번은 가야지 하고 생각은 하지만 좀처럼 행동으로 옮기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다.

일에 치여서 화장실이라도 갈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하며 일하는 간호사가 얼마나 될까. 퇴근하고 침대와 한 몸이 되는 게 더 쉬운 일이지...

운이 좋게 병원에서 진행하는 해외봉사활동, 그 중 몽골에 갈 수 있게 되었다.

7년차, 적다고 하기에는 많고 많다고 하기에는 적지만, 익숙해있던 환경이 아닌 곳에서 원래의 실력을 발휘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그 순간에도 걱정했었다. 물론 비행기가 뜨고 난 뒤에 바로 잠과 함께 잊어버렸다. 그래서인지 3시간 정도 걸리는 비행은 생각보다 견딜만했다. 준비해 온 목베개가 한몫했다고 생각했기에, 우스갯소리지만 봉사활동 후 귀국해서 모든 사람에게 추천하고 다녔다. 이동시간이 길다면 꼭 추천한다고...

그렇게 비행 후 도착한 몽골의 첫인상은 '산이 없다'는 것이었다. 누가 이전에 유럽에 간다면 드넓은 숲이 어떤 것인지 직접 체험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몽골은 그야말로 드넓은 평야였다. 약간 평범할 수도 있는 감상이지만 너무 신기해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분명 작은 공항이 있고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 옆으로 있는 건 다 평야. 심지어 일기예보에도 없던 눈이 와서 더 당황스러웠으나 이게 바로 내륙지방의 불규칙한 기후변화라는 생각이 드

니 이것조차 재밌었다. 봉사활동인데 시작이 이렇게 재밌어도 되는 걸까?

도착하여 점심을 먹으러 가는 중에도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있었지만 한국식으로 '일주일동안 큰 문제없이 일정을 하려고 액땀했구나'하고 생각했다. 언제 또 이런 경험을 하게 될까. 아마 앞으로의 삶 중에는 없지 않을까. 적어도 도로가 없는 길을 가다가 바퀴가 빠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작은 사고 뒤, 숙소에 가서 짐을 풀니 피로와 함께 하루가 사라졌다.

둘째 날부터는 진짜 봉사활동을 위해 아침부터 움직였다. 옷은 병원에서 제공해 준 단체옷으로 많은 환자들 사이에서 구분이 가능한 파란 병원 옷. 평소에 중환자실에서 입던 것 보다는 활동성이 조금 떨어지지만 중환자실의 환자를 볼 건 아니었기에 충분했다. 근처의 작은 종합병원으로 이동하여 가지고 온 약품을 정리하고 미리 배정한 교수님과 짝을 이루어 정해진 방으로 들어가 진료를 준비했다. 약품 리스트를 보고 사용 할 약과 사용 가능한 용법 등을 정리하고 투약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와서 창틀 위 미니 투약 칸을 만들었다. 평소처럼 잘 정리되어있는 카트는 아니었지만 최대한 가지런하게 원래 하던 것과 다르지 않게 할 수 있게 준비해주었고, 통역사 학생이 들어오고 진료가 시작되었다. 예약한 환자들 또는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던 환자들 차레대로 들어왔는데 대부분의 정형외과 환자들은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데 허리, 무릎, 목, 어깨, 팔꿈치 등의 통증 호소였다. 얼마나 많았냐면 이들의 다르함의 진료가 끝나기도 전에 허리를 지칭하는 몽골어가 '노로'라는 것을 외우게 되었다는 게 그 증거이지 않을까. 다르함은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

이 많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다리의 형태를 한 경우가 많았다. 생각보다 높은 굽의 구두를 많이 신는 것인지 무지 외반증으로 오는 사람도 많았고 연세에 비해 관절염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X-ray 사진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에 교수님은 정확한 진단은 어렵다고 하셨지만, 최대한 가능한 사정을 하고 진단을 내리셨는데 아무래도 직접 사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 도울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았다. 그래도 진료보조가 제일 큰 역할이었기에 처방전 작성, 주사조제 등을 힘내어 진행하였고 처음엔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마지막 날에는 교수님의 방식에 맞춰 진행했다고 생각한다.

평소 볼일도 없는 외래에서 진료보조를 하는 느낌이라 재밌었는데 만약 이걸 주 직업으로 삼는다고 생각하면 하고 싶지 않았다. 역시 나는 중환자실 체질인 듯. 중환자실에서 뼈를 물어야겠다.

다르항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환자들에게 질문해서 알게 된 의료 정보인데 몽골의 국립병원은 X-ray, CT, MRI 등의 검사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거였는데, 다르항은 북쪽 시골 도시라 국립병원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도인 울란바타르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당일에 가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데 평균적으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뼈에 변형이 온 환자도 있었는데, 살아가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움직일 때마다 불편감, 통증 등이 있다고 했었다. 울란바타르까지는 차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응급한 상황이 생기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진료를 볼까?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로서 아주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했다. 몽골의 의료는 생각보다 기울어있는 것 같았다. 수도인 울란바타르에서 2일간의 봉사활동 기간에 그걸 더 체감하게 되었다.

울란바타르는 몽골의 수도로 몽골 70~80%의 인구가 거주하는 구역이다. 그래서인지 도로에 사람도 많고 차도 많아 항상 교통체증이 있는 곳이었다. 사람이 많다는 것은 인프라가 많다는 의미와 같아서 인지 국립병원이 아니라 곳곳에 사립병원이 있었고 진료의 질도 접근성도 많이 달라 보였다. 특히 진료를 보는 동안 오는 환자의 의료

자료가 많이 달랐는데, 대부분 X-ray도 가지고 오지 않던 다르항 환자들과는 달리 X-ray 사진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았고, 본인의 증상 혹은 진단명에 대해 자문을 구하거나 치료 이후의 경과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았다. 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았다. 아무래도 시골에 비해서 접근성이 좋다는 것이 큰 차이이지 않을까 싶었다. 빈부격차 또한 느낄 수 있었는데 많은 수술 혹은 시술,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대부분 나이에 비해 정정하고 관절염 같은 병의 진행도 늦는 것 같았다. 사립병원에서 찍은 X-ray 한 장이 한국 돈으로 3만원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치료에는 큰돈이 필요한 것 같아서 더욱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골과 도시의 차이가 커서 작은 국립병원이 시골에도 있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다. 다르항에서 진료를 본 병원이 작은 건 아니라고 하였지만, 아무래도 큰 도시에 비하면 그리 크지는 않은 것 같았다.

울란바타르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수도의 병원은 생각보다 큰 수술도 진행한다는 것과 이상한 한국의 영양제가 몽골에서 유행한다는 것. 이름도 기억이 안나는데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먹고 있다며 사진을 보여주었다. 한국에서는 유명하지 않은 보조제였어서 신기했고 몽골에서 파는 보조제는 별로 인기가 없나 정도의 궁금증이 들었다. 한국에서 미국 영양제 먹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겠지?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하다고 몽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비교적 병원 진료를 쉽게 볼 수 있는 한국과 조금 다르긴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잘 산다면 치료를 받는게 많이 어렵지 않은 한국의 치료와 많이 다르지 않은 느낌이었다.

간호사로서 의료봉사에 참여한 것이 매우 의미 있었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된다. 혹시나 다른 기회가 온다면 또 참여하고 싶을 만큼 좋은 시간이었다.

누군가 기회가 되어 갈지 말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면 나는 꼭 가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혼돈의 시대에 무소의 뿔처럼 절대 혼자 가지 않는 우리는 간호사입니다

최지영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2021년 8월. 더운 여름의 어느 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은평성모병원이 개원하고 혈액성분치료실을 혼자서 운영하고 있던 때의 일이다.

2019년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친 후 소중한 생명을 참 많이도 앓아가던 그때, 다들 지쳐 있었고, 나 또한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 그때 나는 혼자서 혈액성분치료실의 모든 업무를 도맡아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힘들었던 것 같다. 직원님도 없었다. 간호는 물론, 환자가 퇴실하고 나면 커튼이며, 침상, 책상 등 웬만한 청소는 혼자서 다 했다. 어느 때부터인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이게 소진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세상이 야속했다.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 지'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누군가 알려주길 바랬던 것 같다. 이곳이 나의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스운 상상이긴 하지만, 어두운 밤 낙하산을 타고 특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적진에 침투하는 특공대가 된 건 아닐까 하는 터무니없는 상상을 하면서 실소도 했다. 그때는 조금씩 서로 미쳐가고 있었는데도 모른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료진들이 말이다.

여느 때처럼 난 일이 너무 많았고, 혼자서 다 하기에는 너무 벅찼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치료가 추가되었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빈자리가 없었던 건지 급하게 병동에서 치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코로나 시국이라 지원 가능한 인력이 없었고, 상태가 위중한 환자인 경우

혈액성분치료실에 지원인력이 없어 혼자 치료하는 건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기계를 가지고 환자가 있는 병동 치료실로 올라가야 했다.

그곳에는 힘들게 숨을 헐떡이며 신음하고 있는 환자분이 있었다. 볼 때마다 적응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이었다. 그런데 의외로 보호자분들은 너무 덤덤하게 그 순간을 이겨내고 있었다. 치료를 하는 3시간 동안 환자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는 찾아들지 않았지만, 곁에서 간병하던 보호자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식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 나갔다. 너무너무 태연해 보였다. 이런 모습을 20년 이상 봐왔기 때문에, 매번 환자나 보호자들을 다독여 왔던 평소의 나에게서는 그분들의 모습이 너무 이상해 보였다. 난 평소와 다르게 보호자들의 그런 모습에 당황하기 시작했고, 낯설다고 느꼈다. 그들의 모습이 오래된 브라운관에 나타난 흑백 영화에 나오는 뜬금없는 독립영화 같은 모습처럼 보였다. 그리고 고통으로 인해 일그러져 있는 환자의 얼굴, 뒤틀리는 몸, 지금이라도 당장 큰일이 날 것처럼 힘들어 하는 신음소리에 점점 마음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아니, 가슴 아프다는 표현이 맞겠다. 생명이 탄생하고, 죽음을 맞이하기까지의 순간이 이토록 고통스럽다는 생각이 갑자기 뇌리를 스쳤고, 가슴 한 곳이 무거워졌다. 그러던 중 '왜 이렇게 힘들게 가셔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고, 마치 그 순간이 그분의 마지막인 것처럼 느껴



졌다. 물론 그 환자분은 그 고비를 잘 넘기셨고 계속 치료를 받으시면 많이 회복 하셨던 것으로 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때의 난 좀 많이 설레발을 쳤던 것 같긴 하다. 가족도 아닌 내가, 객관적이고 전문가적인 태도로 그들을 위로해야 할 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결국에 난 “꺼이꺼이” 소리 내며 울었다. 지나가던 간호사, 사원, 간병인들이 “무슨 일이 생긴 건가?”라며 궁금한 듯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내 모습을 훑어보고 갔다. 한참 울었는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누군지 알 수 없는 따뜻한 손이 나의 어깨를 다독여주었다. 그 제서야 난 울음을 그쳤고, 창피했다. 그냥 그뿐이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듯 환자의 치료를 종료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런데 그날 이후 난 가슴에 응어리진 뭔가가 해소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알 수 없는 따뜻한 손길로 인해 엄청난 위로를 받았다.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는 2015년 10월. 어느 화창한 가을 날, 3년 여의 대장암 투병으로 고생하시다가 하늘나라로 떠나셨다.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고 정신없이 달려갔고, 난 그날따라 하늘이 너무 좋아서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다. 너무도 맑고, 화창한 오후였다. 마지막 숨이 남아 있을 때 엄마를 만날 수는 있었지만, 어떠한 눈 맞춤도, 대화도 할 수 없었다. 마지막 잡은 손은 따뜻했지만, 곧 차갑게 식었고, 모두들 이 순간이 올 걸 알고는 있었지만, 몰랐던 것처럼 슬퍼했다.

난 맏이가 아니라 둘째다. 서울에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곁을 지키지 못했던 자식이란 이유로 제대로 보내드릴 자격이 없다는 죄책감에 큰 목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엄마 가시는 길에 내 주장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보내드린 아쉬움이 아직도 내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아 못내 아쉬운 마음이었다. 죄송한 마음이 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제 할 도리를 못했다는 생각에 장례를 치르는 동안 힘들었지만, 더 열심히 뒷수습을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티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고, 각종 행정적 처리를 하는 동안 난 씩씩한 척 했다. 아무렇지 않게, 평소에 병원에서 간호 업무를 보듯 장례 절차를 마무리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를 보내고 여러 해 동안, 엄마를 찾아가면 하염없이 눈물이 나긴 했지만, 난 나의 일상을 잘 유지해 왔고, 나를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다.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내 맘 한 곳에는 그리움과 상실감으로 구멍이 나 있었나 보다.

하지만, 그날 이후 엄마를 진짜 보내드렸다는 생각을 했고, 미처 닦아 내지 못했던 눈물을 닦아 낸 것 같았다. 그 이름 모를 따스한 손길에 감사할 따름이다.

어느덧 내가 지천명이라고 하는 나이가 되었다니 놀랍기만 하다. 26년차 간호사라니! 간호사인 나란 존재와 나의 직무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어찌 보면 일방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환자와 보호자들이 우리를 비추는 거울일 수 있고, 그들을 보고 많이 배우고,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그날의 일로 어렵듯이 알게 되었고, 인간으로서도, 자식으로서도, 엄마로서도, 간호사로서도 조금씩 성장하는 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난 항상 생각한다. 나에게 주어진 소임, 천명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늘도 존재하고 있고, 우리로 말미암아 환자와 그의 가족들이 위로 받기도 하지만, 그들로 인해 우리도 치유 받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내 옆에서 항상 날 지지해 주는 소중한 이들과 평범한 일상을 감사히 보내기를 기도한다.

나의

노로 바이러스

장염 일지

윤명중 서울아산병원



1일차.

밤 11시 첫째 딸 몸이 불덩이다.

고막체온기로 열을 재본다.

38.7°C! 이런!

아내랑 아들이 깰까 봐 조심히 딸만 거실로 데리고 나온다.

다시 재 본다. 38.9°C!

약통을 급하게 뒤져서 해열제를 먹인다.

정신 못 차리는 딸은 약을 거부하지만 안 먹으면 죽는다고 협박하며 먹인다.

물도 먹인다. 갑자기 감기라니 어이없다.

“아빠! 너무 힘들어!” 6살 딸이 흐느낀다.

얼굴에 열꽃도 피었다.

갑자기 구토도 한다!

더러운 구토물이 바닥으로, 아이의 머리카락으로 흐른다.

놀란 딸아이는 울어버린다!

아내가 놀라서 방에서 뛰쳐나온다! 아내가 아이를 씻기고 나는 바닥을 닦는다.

샤워를 하니 열은 금방 내린다.

2일차.

딸이 소아과에 가서 노로 바이러스 장염 진단을 받는다.

때 아닌 노로 바이러스!

아내는 저녁 내내 속이 울렁거린다고 토하고 싶다고 했지만 건강한 아내를 믿고 무시했다.

그날 밤 여지없이 아내도 뉘뉘 구토 시작!

난 출근을 위해서 잠을 청한다. 난 괜찮은 거 같다. 다행이다!

3일차.

아침에 일어나니 아내 상태가 심각하다!
여자들은 아프고 남자인 나와 아들은 괜찮다.
아내는 다 죽어간다.
장모님께 SOS를 친다.
난 걱정하면서 출근을 한다.
조퇴를 하고 애들 먹을 젤리랑 아내를 위한 쿠키, 에너지 음
료를 급하게 사서 집에 간다.
집에 도착하니 딸은 방금 잠이 들었다고 한다.
아들 동네 산책 시키고 집에 오니 딸이 놀이터에 앉아 있다.
놀고 싶다고 한다. 가엽다.

나도 급하게 먹은 점심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리다.
쓰린 속을 달래기 위해 부엌에 남아 있던 불은 국수를 허겁
지겁 먹는다. 맛있다!
하지만 내 배는 땡땡해지고 울렁인다.
이상하다! 혹시 나도?

저녁 8시쯤 너무 울렁거려서 구토를 한다. 설사도 같이...
위 아래로 난리가 났다.
싸 싸아아! 싸아아! 싸 싸아아! 싸아아!
항문이 아프다!!!
구토 다시 시작! 액액.
설사 여섯 번, 구토 네 번 정도 한다.
마지막 구토는 십이지장 내용물과 담즙까지 쥐어짜는 기분
이다.
약 먹고 토하고 약 먹고 토하고...
토사물에 약도 녹아 있어 더욱 쓰게 느껴진다.
예수님께 살려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온다.
“살려...주세요...”
설사보다 구토가 너무 힘들다! 구토가 멈추질 않는다.
내 위장은 걸레가 되는 느낌이다. 으슬으슬 춥다.
내일 출근은 안 될거 같다.

4일차.

아침에 체중을 재보니 2kg 빠졌다.
온몸에 물이 빠진 느낌이다.
근육통도 생겼다. 속이 쓰리지만 토할까 봐 약 먹기도 두
렵다.
입이 너무 말라서 아내를 위해 사온 이온 음료를 조금 따라
먹는다.
너무 너무 달콤하고 상큼하다!
점심은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한우 죽을 먹었다.
아내가 간장하고 참기름을 넣어줘서 너무 맛있다.

딸아이는 살아나서 재잘거리고 아들은 아직 건강하다.
저녁이 되었다. 난 아직 속이 불편하고 기분 나쁜 두통이 남
아있다.
아내와 딸이 회복하고 있어 노로 바이러스 장염은 끝나가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다!

“노로 바이러스! 너 정말 무섭구나!”
“다시는 만나지 말자!”

끝.





권나은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목요일 오전 8시 50분.

전신 골 스캔 검사 처방을 받아 방사성동위원소를 주입하고, 검사 시간인 12시 30분까지 전신에 퍼지는 동안 3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고민하다가 병원 6층에 있는 예배실을 찾았다.

물을 마시려고 텀블러를 꺼내려는데, 아뿔싸! 뚜껑이 제대로 닫혀있지 않았는지 가방 안이 물로 흥건하다.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거칠어지며 얼굴이 순식간에 달아오르는 게 느껴진다. “평정심…. 평정심…”을 되뇌이면서 동시에 머릿속으로는 “나는 왜 이렇게 부주의한 걸까?” 자책하면서 한숨을 늘어지게 쉰다.

창가에 가방과 짐을 늘어놓을 만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리를 잡고 앉았다. 가방에서 검사 예약 안내문과 수첩, 펜과 물건들을 꺼내어 휴지로 닦아 늘어놓고(이런, 휴지도 젖어

있었다…) 가방을 뒤집어서 대충이나마 물기를 털어내고 창가 벌이 좋은 곳에 올려두었다.

한바탕 침수품들과 씨름을 한 후, 긴장을 풀고 의자 깊숙이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스테인드글라스가 다채롭게 빛나는 작은 예배실.

평일 오전이라 아무도 없는 공간. 그 고요함에 마음이 차분해진다. 이윽고 사람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더니, 강단에 한 남성분이 성경을 들고 서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한다. 목요일 오전 시간에 예배가 있구나!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당황스러웠지만, 물건들을 늘어놓은 창가가 앞쪽 구석 자리였기에 그 많은 짐들을 챙겨 나오기에는 너무 시선이 집중될 것 같았다. 게다가, 그 많은 짐들을 어디에 두고 말린단 말인가? 덕분에 생각지도 못하게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비치용 성경이랑 찬송가도 챙겨왔다.

말씀의 소재는 구약 성경의 인물인 모세를 낳은 어머니 요게벳이었다. 목사님이신지 전도사님이신지 모르겠지만, 원목실에서 오신 그분은 요게벳의 사랑처럼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켜보고 애쓰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에 관해 이야기한다.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가 유대인이 더 이상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아가 태어나면 죽이도록 했고, 요게벳은 그런 명령을 피해서 출산 후 바구니에 넣어 나일강에 띄워 보냈다. 모세의 누이가 흘러가는 바구니를 지켜보다가 파라오의 딸이 바구니를 건지자 다가가서 “유모를 구해올까요?” 묻고는 공주의 허락을 받아 친모를 데려와서 젖을 먹이고 돌보았다는 이야기를 읽은 기억이 떠오른다.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아 바다에 띄워 보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노심초사했을까. 그럼에도 포기하지 못할 만큼 그 아이가 소중하고 간절했을 것이다. 그렇지. 우리 엄마도 그러셨던거겠지. 직접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엄격하기만 하셨던지라 잘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나름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돌보고 사랑하셨을 거다. 지금도 그렇고.

시선을 돌려 예배실 안의 환자들을 본다. 환의를 입고 온 환자와 보호자, 혼자 온 환자, 또는 혼자 온 보호자도 눈에 띈다. 이동용 폴대에 수액과 약을 세 개나 달고 온 환자도 있고 걸어 다니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 환자도 보였다.

말씀 전달을 마치고 자유로운 기도 시간으로 이어졌다. 팔을 들고 눈물로 흐느끼며 간절하게 호소하는 사람들, 고개를 떨구고 축 처진 어깨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나아 검사 시간이 한참 남아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모두가 자리를 떠난 이후에도 홀로 남아 기도하는 사람의 간곡함이 나에게까지 느껴지는 것 같았다. 당연하게 여겨온 것이 지금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하다. 치유, 회복, 건강. 일상에서는 공기처럼 기본값인데 지금 내가 있는 이 공간에서의 느껴지는 무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다가온다.

이제 노년기에 접어든 엄마의 내과 질환과 무릎 통증에는 그저 안타까운 마음에 “운동하시라.”고만 말씀드렸지만, 엄마의 언니인 이모가 무릎 수술 후에도 호전이 되지 않고 거동이 힘들 지경인데도 요양보호사 일을 하며 거동이 힘든 노인들을 돌보신다는 말에는 속상함이 올라왔다. 친척이 다쳐서 사치마비 상태가 되었는데 부모도, 배우자도 없어 돌볼 사람이 없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결국 눈물이 터졌다. 내 다리로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하고, 내 손으로 나의 사소한 욕구조차 채우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러나 울며 탄식만 할 뿐, 타인의 힘든 상황에 마음으로 공감한들 실제로 얼마나 그 고통에 함께할 수 있을까.

저마다 감정이 건드려지는 지점이 달라, 차마 그 깊은 곳을 헤아리기 어려울 뿐더러, 어쭙잡게 서툰 위로로 건네다가 불필요한 생채기를 더할 수도 있다.

가까운 가족, 친구, 지인이라면 함께 울고 곁에 있어 주고 이런저런 필요를 채우는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큰 상처를 제공하기도 하기에 선뜻 나의 아픈 곳을 드러내기도 쉽지 않다.

연세대 심리학과 서주환 교수님의 말이 생각난다. 진정한 행복은 Happiness and Disaster_행복과 고난이라고. 고통이 있기에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던 말.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지만, 비슷한 행복감이 유지된다면 어느덧 그 일상적인 행복에 무디어져서 둔감해지겠지. ‘적절한 고통과 좌절이 있으므로 다음에 오는 행복이 더욱 달콤하고 기쁘게 느껴지는 것’이라는 글을 읽었을 때, 인생의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다.

그래! 인생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거다. 파도와 풍량이 거칠게 몰아쳐 마음 졸이다가 낙심하고 숨이 턱에 차오를 때도 있지만, 어느덧 파도와 풍량이 잦아들고 잔잔한 해수면에 기대어 안도의 한숨을 돌릴 수도 있게 된다. 게다가 풍성한 먹거리가 있는 섬에 도달해 달콤함을 맛보기도 하고, 때로는 보물이 묻힌 곳에 도달하거나 유명한 탐험가가 되어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은가. 또다시 더한 풍량을 만나기를 반복하다가 설령 생의 마지막에 도달할지라도, 그 여정에 크고 작은 즐거움의 기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인생은 평평한 지평선이 아니라 들고 남이 있는 바다와 같다. 때로는 더 바닥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곤두박질치다가도, 어느 순간 날아갈 것 같은 행복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한 변화가 있기에 다음에 오는 감정들을 좀 더 크게 느끼는 것이겠지. ‘나는 아무런 행복감도 필요 없으니 고통을 피하겠다.’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저런 수많은 소요와 사람들에게 부대끼며 살아가는 보통의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인생의 풍파 속에서 밑바닥까지 내려앉아 낙심하고 고통받고 있겠지만, 그 누구든 이윽고 오게 될 편안함과 즐거움을 꼭 맛볼 수 있으면 좋겠다. 예배당에 있는 순간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환자들이 이 깊은 고통 속에서 실망하거나 지치지 않고, 사랑받는 사람들과 순간순간의 크고 작은 행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해본다.

취미 찾아 삼만리

연제영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간호사가 되기 전부터, 나에게서는 취미라고 칭할 수 있는 활동이 없었다. 잠 자기, 솜뿔 보며 누워서 멍 때리기는 취미가 될 수 없었으니까. 취업 준비가 한창일 때 지원서류에 있는 취미란을 채울 때도 많은 고민이 필요했다. 이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취업 준비로 바빠서 취미 따위 만들 시간이 없었다는 핑계를 대기도 했지만 사실 취미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던 것 같다. 취업 후 일과 인간관계, 실수하지 않아야 한다는 부담감 등 여러 압박감으로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했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기 시작했고, 이 글은 내 취미를 찾기 위해 도전해 본 몇 가지 활동들에 대한 감상이다.

먼저 내가 도전해 본 것은 내 친구의 취미였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 하며 나에게 맞는 것인지 확인해 보는 게 더 쉬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운 좋게도 내 친구 중엔 남들보다 많은 취미를 가진 친구가 있었다. 손으로 꼼지락거리는 일은 뭐든 잘하는 친구였기에 사부작러(사부작+er)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 친구였다.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제일 먼저 해본 것은 네일아트였다. 그때 한창 친구가 네일아트에 빠져있었다. 친구가 설명해 주며 먼저 오른손 손톱을 칠해주었고 왼손은 내가 직접 해보았다. 처음이라 깔끔하게 발리지 않고 치덕치덕 발라지는 느낌이 났지만 그것대로 재미있었다. 조그만 손톱에 온 집중을 다해 좋아하는 색으로 그림을 그리고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생각보다 매력 있었다. 친구네 집에서 나와 집에 가면서도 계속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구경하며 “괜찮은 취미가 될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짧고 아무것도 없는 손톱에 너무 익숙해져 있던 탓에 손톱이 무언가에 덮여 있는 느낌이 불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다음날부터 계속 손톱이 신경 쓰였고 결국 이를 만에 못 참고 지워버리고 말았다. 네일아트는 그저 좋은 경험으로 여기고 넘길 수밖에 없었다. 대신 가끔 친구가 직접 하는 네일아트를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다.

대학교 첫 겨울방학, 친구들과 일본 여행을 간 적이 있었다. 여러 애니메이션 굿즈들이 있는 가게를 갔는데, 애니메이션을 잘 안 보던 나는 그저 친구들을 따라다닐 뿐이었다. 친구들이 신나서 살 만한 굿즈들을 고르는데, 나도 무언가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사게 된 것이 캐릭터 미니 레고였다. 이때 한국으로 돌아와서 꽤 재밌게 레고를 맞췄던 기억이 있었다. 이때 기억을 살려 잡화점에서 캐릭터 미니 레고를 두어 개 구매하여 맞춰보았다. 두 시간 정도 되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집중하여 한 층, 한 층 쌓아가며 입체적인 조형물을 만드는 것이 재밌었다. 설명서대로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다지 머리를 많이 쓰지 않으며 손을 움직이는 것이 적성에 맞았다. 또 만들어진 레고가 귀여워서 책장에 올려놓고 한 번씩 쳐다보게 되니 더욱더 마음에 들었다. 미니 레고에 익숙해졌을 때, 진짜 큰 레고를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취업 직전 갔었던 부산 여행에서 레고 박물관에 들렀는데, 그때의 레고로 만든 다비드 조각상, 한옥 등 멋있는 레고들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레고를 사려고 가격을 검색해 봤을 때, 내 눈을 의심했다. 가격이 어느 정도 나갈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성인용 레고는 부자들의 취미구나...” 하는 감탄이 들었다. 하고 싶은 것은 해 봐야 하는 성격이라, 돈을 모아 성인용 레고 중에서 그나마 저렴한 편이었던 10만 원가량의 자동차 레고를 구매하게 되었다. 친구를 불러 최신 음악을 틀어놓고 수다를 떨며 5시간에 걸쳐 자동차를 완성했다. 실제로 바퀴가 굴러가고 문을 여닫을 수 있는 자동차였다. 엄청난 뿌듯함이 들었지만, 문제가 있었다. 만드는 것까진 좋았지만 마땅히 전시해놓을 곳이 없었다. 책장은 이미 그동안 했던 미니 레고들이 점령하고 있었고, 미니 레고보다 좀 더 큰 크기의 자동차에게 책장은 너무 좁았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책상 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 가격과 공간의 문제로 레고는 아주 가끔 미니 레고만 맞춰보는게 현실이다. 이제 정말 놓을 자리가 없어 동생의 책장까지 레고로 점령당했다. 미래에 언젠가 내 집이 생기게 된다면 방 하나를 레고 전시용 방으로 만들고 싶은 로망이 생기게 되었다.

요즘 말로 파워 집순이인 나는 집에서 나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심지어 언제나 집에서의 나의 활동 범위는 침대와 화장실 뿐이었다. 또한 몸치인 탓에 몸으로 하는 활동, 즉 운동도 좋아하지 않았다. 이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 몸은 점점 망가져 갔으며 누워만 있어도 허리가 아플 정도로 상황은 심각해졌다. 운동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할 때 즈음, 타 병동으로 한 달 동안 파견을 가게 되면서 3교대가 아닌 상근직처럼 일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생겼다. 이때부터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고, 운동기구의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 피티 수업을 동시에 들었다. 처음엔 자세가 많이 무너져 있어 자세를 잡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운동이 끝나면 뿌듯함이 몰려왔고 시간이 지나니 자세는 자연스럽게 교정되었다. 가장 신기했던 것은 어깨 말림이 심해서 바벨을 등에 올려 양손으로 잡는 것이 안 되며 바벨 스쿼트가 아예 불가능했었는데, 등 운동을 열심히 하니 약 한 달 뒤에는 무리 없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었다. 파견이 끝난 후에도 최소 2~3일에 한번은 1시간 이상 운동하려 노력했고, 하는 김에 식단 조절도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6개월 동안 체중 10kg 감량에 성공했다. 요즘은 필라테스에 도전 중이며 거의 통나무 같은 내 유연성에 충격을 받고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운동은 하고 나면 뿌듯하지만 마냥 즐거운 취미는 아니다. 하지만 건강 유지를 위해 운동은 평생 가져가야 할 취미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지겨워지지 않도록 여러 운동을 도전해 볼 생각이다.

이 외에도 퍼즐, 뜨개질 등 몇 가지 활동을 체험해 봤는데 그다지 취향은 아니었다.

어딘가에서 사람은 감정 소모가 있는 것,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것, 몸이 힘든 것. 3가지 취미를 가져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에 깊이 공감하기 때문에 나의 취미 찾기 여정은 계속 될 것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유방암 이야기

남윤경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유난히 빠르게 지나갔던 일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일년은 바로 제가 유방암을 진단받고 표준치료가 끝나기 까지입니다.

23년 6월, 가슴에 몽우리가 잡혀 유방외과를 방문하면서부터가 긴 유방암 치료과정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아이가 셋이기도 하고 세 아이 다 모유수유를 했는데 유방암일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진료를 보러 간 저한테 유방암이라는 진단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막 돌 지나서 뭘 모를 셋째와 초등학교 두 아이한테 엄마가 유방암이라는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할지 막막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병에 걸려서 당분간 집에도 없을 것이고 너희들도 돌봐줄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이 생각보다 너무 아무렇지 않아서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방암 수술을 하러 외과에 입원을 하고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외과에 입원해 검사를 하다 보니 이미 겨드랑이까지 전이가 되어 있어서 바로 수술하는 것보다는 선행암 후 수술하는 것이 좋겠다는 소견을 듣고, 혈액종양내과로 전과를 하여 항암을 1차하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그렇게 힘든 거라는데 1차 항암을 하고 퇴원하는 날 컨디션이 평소시랑 크게 다르지 않아 안심하고 있던 제가 안일했다는 것을 2차, 3차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항암 할 때마다 컨디션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암하고 바로 일하던 초기와 달리 4, 5, 6차는 항암 후 컨디션이 제일 심하게 떨어지는 10일 전후로는 한방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도 컨디션이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6번의 선행암을 마치고 유방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방암 수술은 선행암에 비하면 힘들지 않았고, 처음에는 전 절제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선행암의 효과로 부분 절제술만 시행하게 되어 몸의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대신 방사선 치료를 19번 해야했지만요.

방사선 치료와 후항암 12번까지 모든 표준치료가 이제 다 끝나고, 첫 번째 김진도 무사히 통과하여 현장으로 다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유방암 치료 과정을 밝히는 이유는, 그 치료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경희의료원 직원분들께 한 분 한 분 인사드리지 못해, 이렇게 글로라도 저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긴 치료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병원의 직원들을 마주하게 되었고, 저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데도 같은 병원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는 어디를 가든 많은 배려를 받았습니다. 단지 직원이라서 병원비를 할인받고 검사를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보다 더 도움이 된 것은 따뜻한 말과 응원 그리고 관심과 배려였습니다.



첫 초음파 검사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누워있는 저를 걱정스런 표정으로 지켜봐주시던 유방외과 간호사님, 조직검사를 갔을 때 최대한 빨리 날짜를 잡아주시려고 알아봐주신 검사실 직원분, 케모포트 삽입과 제거 때 도움 주신 혈관조영술 직원분들, 그리고 긴 항암동안 혈액검사를 하러 갈 때마다 친절하게 응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혈액검사실 직원분들, 여러 차례 항암으로 입원할 때마다 제 안부를 물어주시던 직장 동료들, 외과 및 암병동에서 항상 세심하게 살펴주시던 간호사 선생님들, CT, MRI, 핵의학과에 검사하러 갈 때마다 편안하게 검사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던 방사선과 선생님들, 긴장된 저를 편안하게 해주신 수술실 직원분들, 저의 주치의 교수님들, 그리고 병가 동안 저의 빈자리를 채워준 우리 과 간호사들 그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표준치료 과정 속에서는 너무 힘들어 제 자신 돌보기에 급급해서 제대로 감사 인사도 드리지 못해 항상 마음 한편에 빚을 지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특별시간호사회에서 에세이 원고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제 마음을 전달하고자 부족한 글이지만 투고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호르몬 치료와 5년간의 추적관찰이 더 필요한 상태라 암 완치판정까지는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다시 병원에 돌아와서 일할 수 있고 일상을 누릴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직장 곳곳에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 말고도 많은 직장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크고 작은 질병을 이겨내고 열심히 병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자신의 질병을 이겨내고 오늘도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자분들한테 저도 도움이 되도록 오늘도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간호사회에서 운영하는 복지지원금에 대해서도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암 진단을 받으셨거나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분들이라면 www.seoulnurse.or.kr에서 복지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무탈해서 복지지원금 같은 걸 신청하지 않고 흘러가면 좋겠지만, 힘든 일이 생겨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서울시 간호사회 회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PS 엄마의 돌봄이 소홀한 중에도 건강하고 밝게 커가는 우리 세 아이들에게 너무나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간호법, 후배들에게도 역사의식이 필요하다

김은진 목동현대요양병원



인스타그램에서 젊은 간호사들의 의견들을 보노라면, 웬지 속이 불편하다. 선배들이 밭을 갈아 씨를 뿌렸더니 후배들은 당장 열매를 내놓으라 하는 격인 것처럼 보였다. 나도 불과 30대 남짓 먹은 젊은이에 지나지 않지만, 선배들의 노고와 후배들의 우려를 함께 보는 입장에서 쓰고 싶은 이야기가 생겼다.

2024년, 간호사들의 염원이던 간호법이 제정되었다. 몇 년 동안 국가적 이슈였던 사안이었지만 실패와 좌절도 많았기에 사실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적도 많다. 막상 나는 요양병원 간호사이기도 하고, 부서장으로서 간호조무사의 도움도 현장에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직역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부분들이 염려스럽기도 했다. 나도 부서장이지만, 소위 말하는 요즘 세대 요즘 애들에 불과한 사람이다. 23년 8월 간호 정책 관련 보수교육을 듣고 나서야 간호법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고, 10월 간호 미래 지도자 양성과정도 참석했다.

2024년 서울특별시 간호사회 임원 워크숍의 주제가 ‘간호법과 추진 경과, 간호법안 설명’이어서 관심을 가지고 참석 신청을 했다. 막상 도착해보니, 작은 요양병원의 30대 간호사인 내가 부서장이랍시고 올 만한 곳은 아니라고 느낄 정도였다. 쟁쟁한 병원, 대선배님들이 가득 자리를 채우고 계셨다. ‘잘못 왔다, 올 곳이 아니다.’ 하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잔뜩 쪼그라드는 마음에 다시 돌아갈 생각마저 들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수많은 간호사 후배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선배님 말씀을 경청할 수는 있다고 용기를 내어 버텼다.

그날 나는 ‘역사의식’이라는 네 글자를 마음에 새기고 돌아왔다. 이전까지는 간호법 그 자체만 보았다면, 이날 이후 간호법을 위해 발로 뛰는 간호사 선배님들을 보는 계기가 되었다. 강의하셨던 신경림 위원장님 앞에서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오늘 간호법이 제정되어서 지금 선배님께 돌아가는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도, 오늘 남은 삶의 시간을 불사르며, 내어주는 마음. 오늘 당장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먼 미래의 열매를 위해 발을 가는 분의 모습을 보고 온 것이다. 복잡한 상황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들을 만나 냉대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사정해 가면서 법안을 올려보려고 발버둥 치던 날들은 사실 자존심이고 뭐고 생각할 수 없을 법했다.

간호법이 제정된 후,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를 보았다. 현장에서는 법안 그 자체에 대한 독려와 미래에 대한 준비, 설명을 위주로 말씀하셔서 다 듣지 못했던 에피소드들을 읽게 되었다.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차그마치 16년 동안 이 일에 몰두해 오신 것이다. 요즘 40대 선배들만 만나도 “아이고~ 삭신이 쭈신다. 40되면 정말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들곤 하는데, 백발 어른이 협회 회관에서 요가매트를 깔고 숙식하며, 이 일을 하셨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에 와닿았다. 요즘 조직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이익 생각하기만 바쁘지, 손해 보기로 각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들어서 더 그렇다. 나도 마찬가지다.

아니나 다를까, 젊은 간호사들은 간호법을 봤더니 지금 현장에서 바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비판한다. 명확하게 경계를 긋고 개선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고 있다.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나, PA 업무 경계 등 당장 조율이 어렵지 않느냐고 토로한다. 물론 현장의 어려움, 버거운 현실을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반영되었겠지만 나는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는 8월 28일 법률이 제정돼 간호사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숙련 간호사의 양성을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출처:중앙일보].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제까지 간호사와 관련한 어떤 씨앗도 뿌릴 수 없었고, 뿌릴 발조차 없었다면, 이제는 씨앗을 뿌릴 발

이 생겼다. 황무지 같고 돌밭 같던 곳을 개간한 결과다.

세상이 미래를 위해 자신을 헌신한 독립운동가와 위인들에게 찬사를 보내지만 그렇게 살고자 하지는 않는다. 오늘 하루 편하고 돈 들어오면 그만이지 하는 내 모습에는 ‘역사 속의 나’를 인식하는 자세가 전혀 없다. 간호법은 개인 사업처럼 금전적인 이익이 아니다. 직장인처럼 인센티브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수고한 그 자체로 끝나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단지 이렇게 독려하신다고 했다. “역사적인 순간을 같이 하는게 영광이지 않으냐.” 위원장님이 임원분들께 하신 이야기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이러한 역사의식을 우리 후배들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성토하기 전에 같이 들여다보면 좋겠다. 당장 거들 열매가 없더라도 먼저 박수칠 차례다. 발을 가느라 손·발톱이 다 문드러지고 허리와 무릎이 다 뻐 아버린 이들은 정작, 간호법 제정과 함께 다 끝났다고 쟁기를 던지지 않았다. 아직 후배들을 위한 일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며 쟁기를 넘겨줄 이들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다시 많은 이들의 수고와 손길이 필요할 것 같다. 한뭉 거들 수는 없지만, 먼저 박수쳐 드리고 감사하고 싶다. 이 과정을 통해 후배들에게 남은 것들이 있다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갖춰질 때까지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할 것 같다. 간호법 전사라고 불리길 원하신 신경림 위원장님은, “전사는 일에 몰입해야한다. 시행령, 시행규칙이 갖춰져서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모든 에너지를 쏟을 것이다”고 하셨다. 회의가 가득한 시선이나 발언보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을 때다. 나는 작은 동네 병원 부서장이다. 사실 작년 이후로 겨우 관심을 가진 것 뿐, 법도 잘 모른다. 그렇지만 역사 속의 간호사로서, 과거에 빚을 지고 다가올 미래와 마주해야 하는 간호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사랑과 감사의 시선을 가져본다.

수고하신 모든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잇는 다리 : 간호사의 조혈모세포 기증 이야기

최하영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



저는 이대서울병원 수술실 대동맥혈관병원에서 10년차 수술실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힘쓰며, 인간 생명의 소중함과 의료진의 책임감을 깊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조혈모세포 기증입니다.

대학생 시절 주기적인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헌혈 대기 중에 처음으로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기증자 등록을 결심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결정이 정말 현실로 다가올지 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

다. 간호사가 된 후, 병원에서 다양한 환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 조혈모세포가 한 환자와 일치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증 과정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서의 휴가 문제 등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기증 의사를 밝혔으나, 환자분의 상태가 호전되어 기증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큰

교훈을 주었고, 언젠가 다시 이런 기회가 온다면 주저 없이 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24년, 놀랍게도 다시 한번 제 조혈모세포가 한 환자와 일치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번에는 10년차 간호사로서의 근무 공백에 따른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환자의 절박함을 생각하며 곧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수년간 병원에서 일하며 목격한 환자들의 고통과 절박함을 떠올렸습니다. 간호사로서 느꼈던 막막함을 넘어, 이제는 제가 직접 환자에게 희망을 선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동료들과 상의하고 가족들의 지지를 받으며, 저는 망설임 없이 기증에 응했습니다.

2024년 2월, 저는 이대목동병원에 입원하여 3일간 조혈모세포 기증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으로 ‘환자’가 되어 병실에 누워있는 기분은 묘했습니다. 기증 과정은 백혈구 수치를 높이는 주사 맞기, 혈액 채취, 원심분리를 통한 조혈모세포 분리 등 세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에서 불편함과 피로감이 느껴졌지만, 환자를



생각하며 이 정도의 불편함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느꼈 습니다. 특히 의료진들의 따뜻한 배려가 인상 깊었고, 이를 통해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진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3일간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제가 기증한 조혈모세포가 어떤 이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할 때는 오히려 출가 분한 마음이 들었고,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최근 환자에 대한 소식을 협회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호전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조혈모세포 기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료적 행위를 통한 치료를 넘어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준다는 것,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보람을 주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숭고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증에 대한 인식 부족과 두려움으로 인해 참여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

을 통해 조혈모세포 기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달았습니다. 기증 과정이 걱정했던 것보다 안전하고 간단하며, 회복도 빠르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또한 이 경험은 제 직업관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간호사로서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더욱 따뜻해졌고, 환자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더 나은 간호사가 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또 다시 기회가 된다면 주저 없이 조혈모세포 기증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감동과 희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고 싶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이는 곧 생명을 나누어 주는 숭고한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한 환자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이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증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희망을 나누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Spread the word

김재경 경희의료원



여름이 좋아? 겨울이 좋아?

나는 단연코 여름이 좋다.

많은 activity들이 가능하고 즐거운 추억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여름은 정말 무엇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웠다. 9월인 지금도 덥다.

코카콜라는 여름과 겨울의 광고가 다르다.

여름에는 시원한 수영장에서 무더위를 잊을 정도로 시원하고 짜릿한 순간을 연출하고, 겨울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등장하여 누구든 따뜻함을 나누는 산타가 될 수 있다고 광고한다. 특히 나는 겨울용 코카콜라 광고에서 북극곰이 북극의 밤 오로라를 보면서 콜라를 마시는 광고가 가장 좋다.

그런 북극곰이 문제라고요?

책 제목이 그렇다.

북극곰이 문제라고요(안치용 지음, 마인드큐브)

책 제목도 그렇지만 제목의 글씨도 귀엽고, 책 표지도 코카콜라의 북극곰이 빙하위에서 안착하고 있는 그림도 귀여운 책이다.

그러나, 내용은 그닥 귀엽지 않다. 끔찍하고 한편으론 공포스럽다.

북극곰이 무엇을 해서 문제가 아니다.

북극곰의 안위와 존재가 위협을 받는 것이 문제다.

기후위기는 우리는 머리로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내 곁에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그걸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기후위기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더운 거지?

북극은 기후위기 시대의 '탄광속의 카나리아'같은 역할을 한다고 한다. 위험을 경고하는...

대표적으로 책에서 설명하는 위기는 크게 북극곰, 빙하, 바 이러스로 나눌 수 있다.

북극곰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협받는다.

북극곰은 바다표범을 먹이로 삼는데(나는 북극곰이 생선을 먹는 줄 알았다.) 그 바다표범을 사냥하기 위해 오랫동안 수영을 한다는 것이다.

바다표범을 사냥하는 전술 또한 독특한데 바다표범이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위로 떠올라올 때까지 숨구멍 앞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린다. 마침내 바다표범이 떠올라오면 북극곰은 뒷다리로 선 채 앞발로 바다표범의 머리를 때려 기절시킨다. 이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2018년 4월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관찰한 북극곰의 9마리 중 4마리는 바다표범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한다.

바다표범 수가 줄어서가 아니다. 북극의 바다 얼음 면적이 줄어들어 적절한 사냥터를 확보하지 못하니 더 많이 수영하여 이동하는데 그럴수록 몸무게를 더 많이 잃게 되고, 근육량이 줄어들어 사냥에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빙하가 녹고 얼음이 줄어 들면 말 그대로 물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바닷물이 증가하면 해수면 가까이의 도시들은 물에 잠길 수가 있다. 해수면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극 얼음이 사라지면 극지방의 찬공기를 가두는 제트기류에 이상이 생겨 이상기후가 발생한다.

이는 얼음이 녹으며 따뜻해진 북극의 공기가 제트기류의 힘

을 빼어 늘ерж게 만드는데, 이 늘ерж집에 의해 따뜻한 공기가 북극으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다. 이로 인해 겨울철 중위도권인 나라에서 기록적인 한파를 보여주기도 한다.

반면 뜨거운 공기가 유입되는 나라에서는 말 그대로 폭염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바이러스.

빙하에 얼어있던 바이러스가 녹아 어떤 전염병을 만들어낼지 모른다는 것이다.

예로 3만년을 동면 상태로 지내다가 빙하가 녹으면서 되살아난 피토티바이러스 시베리쿰이란 녀석이 있다. 다행히 이 녀석은 아칸타메바라는 아메바를 감염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떤 바이러스가 어떻게 살아남아 인수공통감염으로 인간을 해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

책을 읽는 내내 실내온도는 영상 31도였으나, 내 몸 안의 온도는 영하10도였다.

북극곰, 빙하, 바이러스...

앞으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러나 겪지 않도록 최대한 시간을 늦춰야하는...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 50주년을 맞아 발간한 “모두를 위한 지구”에서 우리 모두가 예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부합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특별한 전환이 이뤄져야하고, 그러려면 지금부터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행동을 세부적으로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당신이 기후 위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10가지 방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당신이 기후 위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10가지 방법

그 첫 번째가 ‘기후위기 이야기 퍼뜨리기’ 이다. Spread the word.

두 번째, 정치적 압박을 가하라.

세 번째, 교통 수단을 바꿔라.

네 번째, 전력 사용을 억제하라.

다섯 번째, 식단을 바꿔라.

여섯 번째, 지역의 지속가능한 상품을 구입하라.

일곱 번째, 음식을 버리지 마라.

여덟 번째, 기후친화적 옷을 입어라.

아홉 번째, 나무를 심어라.

열 번째, 친환경 투자에 집중하라.

그렇다.

나는 이 10가지 방법 중 가장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후위기 이야기 퍼뜨리기’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항목이다.

나는 미래의 나의 아이에게, 겨울에 북극곰이 나오는 코카콜라 광고를 보며 “저 북극곰이 너무 귀엽지 않니?” 라고 말하며 웃고 싶다.

우리 모두의 지구.

함께 지켜 나가야하는 지구.

같이 함께 동참하길.





◀ 아가야 내 손을 잡으렴

아가야.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두려움에
아주 힘들지? 그럴 땐 나의 손을 잡으렴. 따뜻한
손길로 널 감싸안아 줄게.

장희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 해피버쓰데이투유

관계자 외 출입금지!

출근하면서 5층 수술실 출입구 앞에 보
이는 안내문.

환자의 수술 안전을 위해 제한된 사람만
출입하는 곳이라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함께 일하는 우리끼리 정이 많
이 쌓였나봅니다~

매일매일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우리 팀 막내의 생일이라는 소식을 듣고
삼삼오오 모였습니다. UM선생님부터
의공학팀 선생님과 UR SA선생님까지!

케이크와 초를 준비하고, 고깔모자도 쓰
며 즐겁게 생일파티를 한 사진입니다.

막내야 생일축하해♥

김하영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이게 바로 행복이지!

데이 근무 끝난 후 그림 같은 하늘과 솔솔 부는 바람, 맛있는 치맥과 함께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한 병동 식구들과 즐거운 시간! 이게 바로 행복이지~!

김지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간호법 통과를 기원하며...

21년도 햇병아리 시절부터 함께한 동기들이!
간호법 있는 우리 나라, 우리 병원에서 영원히 함께 하자~!

한도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간호 역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순간!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들의 권리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이에 간호법 관련 역사적인 순간을 동료간호사들과 축하하고 기념하자는 뜻의 내용입니다.

서금희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 너희 덕분에 30년을 넘겼다~

1994년에 서울의료원에 입사해 30년을 같이한 간호사 친구들 8명과 30주년을 맞이하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친구들이 있어 든든하고 힘든 직장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남지 않은 퇴직때까지도 함께 으쌰으쌰 하자!!!!

김남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숨은 행복 찾기

바쁜 일상이지만 순간 순간의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찾아가다 보면 슬며시 미소가 지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을 차곡차곡 행복 적금통에 적립하는 서울성모병원 수술간호팀의 소중한 이벤트를 사진으로 담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오늘도 애쓰는 수술간호팀 모든 직원들을 위해 원목실 신부님과 함께 사랑의 화살을 발사~

변상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삶의 새로운 희망을 주는 필터기

월, 수, 금~~ 화, 목, 토~~ 가족보다 자주 만나는 우리(환자와 의료진)~~~ 여기는 이대목동병원 인공신장실 입니다.!!

류근영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 이멤버 리멤버..♡

CPR이 끝나고 나면 ICU에서는 어떻게 하냐고요? 열심히 차팅을 시작합니다. 키보드를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더 받아주고, 검사실에 연락해 주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어서입니다.

“뭐 도와줄까?”, “이거 도와줄까?” 옆에 그들이 있기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죠.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이멤버 리멤버입니다.

이인혜 서울대학교병원

▶ CPR후의 우리의 발.

양말이 구멍이 난 줄도 모르고, 신발이 찢어졌는지도 몰랐지만, 그래도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다.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발

심봄이 경희의료원



◀ 제일 행복한 순간은?

제일 행복한 순간은? 뭐니뭐니해도 칼퇴! 데이 쌤들~ 우리가 부럽지요? 하하하~

박근형 경희의료원

▶ 펠모동산의 귀여운 펠모토비들

즐거운 병원생활, 행복한 병동생활은 만들어
가기 나름

한혜민 경희의료원



▼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하는 간호사

아직 1년이라는 적은 경험을 가진 간호사지만 간호 지식과 기술은 물론 환자를 대하는 태도, 공감과 이해하는 능력, 라포를 쌓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에서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최유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 환자과 가족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작은 희망이 되길.

침상과함께내려온장비들을바라보며,오늘도우리가최선을다했음을느낍니다

장재식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언어보다 진한 진심 ♥

여러 번역기로도 온전한 하나의 문장을 전하기 어려웠던 외국인 환자와 간호사 사이, 오히려 가장 전하기 쉬운 건 진심이었습니다. 먼 타국에서 낯설어할 환자의 하루하루에 섬세한 손길을 더해봅니다. 우리는 오늘도 간호를 통해 언어를 넘어 마음을 전합니다.

배가람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1차 예방의 중요성

Triflow 교육은 전신마취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는 1차 예방법이다. 간단하지만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방법, 전신마취의 부작용 등을 목소리에 힘을 주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면이다.

최민석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 우리는 다 같은 간호사

CT검사시 ambu-bagging을 위해 본인보다 더 무거운 납가운을 후다닥 입고 ambu를 짜는 IP PA, PA를 째히 바라보다 사진 한 장 컷. 우리 모두 간호사니깐요.

허예은 경희의료원

▼ '지금'은 교육중'

간호계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신규간호사들이 임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교육중인 교육전담간호사의 모습입니다.

황도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소식



2024년 중소·요양병원 간호부서장 워크숍

7월 11일 서울특별시간호사회 교육실에서 「2024년 중소·요양병원 간호부서장 워크숍」이 효율적인 조직관리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조운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워크숍에 참석해주신 부서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임상 현장 환경과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본회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각 부서장님들도 서로 소통하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BTI를 활용한 소통역량 강화’를 주제로 정재이(現 엑스퍼트컨설팅 소장) 강사의 특강이 이루어졌으며 총 38명의 간호부서장 및 중간관리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즐거우며 유익한 시간이었다. 좋은 강의에 감사한다”, “현장에서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부서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대한간호협회 주최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임직원 워크숍 개최」

7월 16일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는 지난 간호법 제정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간호법 제정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홍보 개발을 위해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임직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임원, 구간호사회 임원, 각 기관 부서장 7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경림 간호법 제정 특별위원장의 간호법 제정 추진 경과와 제22대 국회 간호법안 리뷰를 통한 간호정책 추진 전략 개발을 모색했다.



대한간호협회 차세대간호리더 연합회 서울특별시 지부 제8기 발대식 개최

7월 24일 서울특별시간호사회 교육실에서 대한간호협회 차세대간호리더 연합회 서울특별시 지부 신입 제8기 리더들의 활동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은 박경옥 대외협력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2023년 제7기 차세대간호리더 활동 결과 발표 후 2024년 제8기 차세대간호리더 활동 계획 발표로 진행됐다. 제8기 새로운 차세대간호리더들을 위한 임명장을 조운수 회장이 직접 한명 한명에게 수여했다. 조운수 서울특별시간호사회 회장은 축사에서 “차세대간호리더는 한국간호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로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간호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이 자리에 계신 차세대 리더들은 간호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춧돌이자 기둥이다”라고 밝히며 격려했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에서는 서울의 15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8기 리더를 모집해 20명을 선발하고 현재 총 31명이 활동 중이다.



대한간호협회 주최 「대한간호협회 차세대 간호리더 연합회 서울지부, 국회토론회 참석」

8월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예비간호사, 청년 정치를 묻다’를 주제로 간호대학생과 함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로 구성된 대한간호협회 차세대 간호리더 400여 명이 국회에 모여 대한민국 간호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서울지부에서는 총 24명(서울 차세대간호리더 연합회 회장: 조민지)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간호의 미래를 이끌어갈 간호대학생들의 정치 리더십을 함양하고 간호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주관한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대한간호협회 차세대 간호리더 연합회는 협회 활동에 대한 간호대학생들의 자발적 참여하에 전국 16개 시도지부로 구성된 간호대학생 연합체로, 현재 서울지부는 31명이 활동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소식



2024년 인생2막 프로그램 개최

8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2024년 인생2막 프로그램이 개최됐다.

인생2막 프로그램은 회원의 은퇴 후의 삶을 응원하고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연1회 진행되고 있으며 이날 퇴직 또는 퇴직예정 회원 43명이 참석했다.

조운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사로서 씁쓸이 달려온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김경필 머니트레이닝랩 대표의 ‘경제개념 끝을 프로젝트’를 주제로 한 특강이 이루어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인생2막을 맞이하여 고민이 많았는데 강의를 통해 도움이 많이 되었다”, “감사하다”고 했다.



2024년 간호정책 아카데미

8월 27일 서울특별시간호사회 강당에서 간호정책 아카데미가 개최됐다.

이번 아카데미는 서울시내 병원, 보건소, 대학 등에서 간호부서장 및 간호관리자 88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명의 국회의원이 초청되어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김예지 국회 보건복지위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강연에서 현실을 반영한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같은 직역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번째 강연자인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는 간호법의 현 주소에 대해 설명하며,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시행령의 제정이 남아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간호법의 명확한 업무 범위 설정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운수 서울특별시간호사회장은 국회의원과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아카데미가 간호 정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앞으로도 간호정책 발전을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두 국회의원에게 간호법 통과를 위한 지혜와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달라고 부탁했다.



여권통문의 날 기념 「2024 서울여성대회」

9월 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024 서울여성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동행매력 특별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이라는 주제로 서울시장을 비롯한 650여명의 여성단체장들이 참여하고 진행되었으며, 본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조운수 회장과 본회 회원 및 대한간호협회 차세대 간호리더 연합회 서울특별시지부에서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양성평등주간과 여권통문의 날 기념으로 여성 권익향상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고 유공자에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본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서초구간호사회 회장 김혜경(서울성모병원 간호국장)이 여권통문유공 표창을 받았다.

행사에 참석한 조운수 회장은 “여권통문의 날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서울특별시간호사회로서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설 것임을 알리고 서울특별시의 여러 기관과 단체들과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간호대학장 및 간호대학생 대상 홍보활동

서울특별시간호사회(회장 조운수)는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직업관 제고 및 예비간호사로서의 현장 적응 능력 신장을 위하여 서울시 내의 15개 간호대학에 직접 현장 간호사가 강의를 진행하는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입사 후 1년간의 현장적응 꿀팁 전수, NRP 소개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9월까지 5개의 대학에서 297명의 간호대학생들이 참석하여 강의를 들었으며 홍보활동은 11월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했던 학생들은 “강의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 인생선배들과 만나서 좋다. 강의가 너무 훌륭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소식



「2024 미래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심화과정」 성료

10월 18일 서울특별시간호사회(회장 조윤수)는 ‘미래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심화과정’ 프로그램을 서울특별시간호사회 5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과정에는 미래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입문과정을 수료한 간호사와 관심 있는 간호사 25명이 참가해 수료했다.

심화과정은 지난 6월 13일 개최된 입문과정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 전 보좌관, 시민단체 대표, 전 정당 사무처 조직국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법안 심사, 조별 토론, 토론 후 발표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를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강의 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과정은 간호사들의 리더십 역량 강화와 정책 참여 의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조윤수 회장은 “미래지도자 양성 심화과정을 통해 간호사들이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Z세대를 위한 프로그램, 「Dance Oneday Class」 개최

10월 18일 서울특별시간호사회 복지위원회 사업 ‘Z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Dance Oneday Class를 SM UNIVERSE(강남구 대치동 소재)에서 개최했다.

‘Z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은 2024년 처음 진행된 사업으로 현장의 Z세대 회원을 격려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2회(오전 11시, 오후 5시)로 진행되었으며 총 37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참여 회원은 아이돌댄스를 배웠고, 종료 시 각 회차당 우수자 3명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했다.

종료 후 참여자들은 “너무 좋았고 힐링되는 시간이었다”, “시간이 짧아서 아쉽고 자주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2024년 제17회 서울간호학술대회」 성황리에 개최

10월 24일 서울특별시간호사회(회장 조운수)는 2024년 제17회 서울간호학술대회(장소: 서울성모병원)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160여명의 간호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운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 인재 확보 및 간호 연구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해 마련된 제17회 학술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수상자 및 논문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는 회원들을 격려했다.

행사는 ▲ 개회식 ▲ 서울간호학술상 시상식 ▲ 특강 ▲ 서울간호학술상 수상 논문 발표 ▲ 우수논문 포스터 선정 순으로 진행됐다.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 ◇대상(1명) △김현주(서울성모병원)
- ◇최우수상(2명) △이승은(서울대학교병원), △정수경(건국대학교병원)
- ◇우수상(3명) △서민정(서울아산병원), △유민영(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임희문(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이어,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의료 환경에서의 생성 AI 적용과 실무 활용’에 대한 주제로 김금란 부회장(한국강사교육협회)의 특강이 이어졌다.

특히, 서울간호학술상 수상 논문 발표가 큰 관심을 받았다. 대상 수상자 김현주 선생님(서울성모병원)의 ‘일 상급종합병원 병동간호사의 업무량 측정 및 간호사 배치수준의 적절성 연구: 혼합연구 설계 적용’의 연구 뿐만 아니라 최우수상 2편, 우수상 3편의 수상 연구논문을 통해 간호사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었다.

학술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연구 성과를 담은 총 12편의 우수논문 포스터 게시 및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의 투표를 통해 박혜란 선생님(강남세브란스병원)의 연구가 우수논문 포스터로 선정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간호사들의 최신 연구 발표와 상호 교류를 통해 간호학계의 발전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무리되었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소식



서울간호돌봄봉사단, 「2024 하반기 플로킹」으로 환경정화 사회공헌 활동 시행

10월 26일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서울간호돌봄봉사단은 단체 환경 봉사활동으로 서울둘레길 8코스 일부(몽촌토성역~송파소방서) 약 10km구간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킹」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인 환경정화 활동으로 박정선 제1부회장과 이규민 위원장을 비롯한 35명의 봉사단원이 플로킹에 참여하여 세 시간 가량 쓰레기를 수거했다.

박정선 제1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65만 간호인의 한목소리로 간절히 바라고 염원하던 간호법 제정안이 공포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서울간호돌봄봉사단 단체 봉사활동에 함께 하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봉사단의 활동은 단순한 환경 정화 활동을 넘어 지역사회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전했다.

플로킹 중간에 만난 지역주민분께서 ‘병원에서 환자간호로도 많이 힘들 간호사분들께서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건네셨다.

또한 행사에 참가한 한 봉사단원은 “토요일이라 가족들과 편안한 휴일을 보내야 할 시간에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단원분들에게 선향 영향력을 느끼게 되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기여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하반기 나이팅게일캠프

10월 30일, 11월 6일·13일·20일 총 4차에 걸쳐 「하반기 나이팅게일 캠프」가 1박2일 프로그램으로 힐리언스 선마을(강원도 홍천 소재)에서 진행됐다.

나이팅게일 캠프는 회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하반기 프로그램은 총 146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참여 회원은 자연과 소통하며 심요가, 마음챙김명상, 싱잉볼비움명상, KIVA 프로그램을 통해 힐링과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참여 회원은 평가서를 통해 “진정한 쉼을 주는 최고의 고퀄리티 힐링캠프였다”, “많은 회원들이 참가해서 좋은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2024년 해외연수프로그램 미네소타주 Mayo Clinic」 연수비 지원

서울특별시간호사회(회장 조윤수)가 주최한 2024년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참여자로 선정된 서울소재 9개 의료기관 소속 10명의 간호사들이 11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미국 미네소타주 Mayo Clinic을 방문, 성공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쳤다. 이번 프로그램은 간호사 교육 시스템, 스마트 병원, VR 치료, 원격 의료 시스템 등을 주제로 다양한 교육과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이를 통해 글로벌 의료 기술을 경험하고, 향후 국내 의료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해외연수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을 통해 각 참가자가 본인이 참관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맞춤형된 경험을 제공했다. 조윤수 회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간호사들이 국제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최신 간호 트렌드를 국내에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척결 및 협력 강화

11월 11일 서울특별시간호사회(회장 조윤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이용구)는 불법개설기관 척결 및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서울본부의 이용구 본부장, 신선숙 지사업무지원2부장, 박지선 요양기관지원부장이 서울특별시간호사회를 내방하여 조윤수 회장, 이영근 사무처장, 조현진 기획관리부장과 본회 3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건보공단 서울본부는 현재 공단에서 진행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 상황을 설명하며, 서울특별시간호사회의 홍보와 지지 서명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불법개설기관 척결을 위해 공단과 간호사회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단체 협업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조윤수 회장은 “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불법개설기관 척결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건보공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소식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축하 기념대회

11월 12일 서울 장충체육관 주경기장에서 간호법 제정을 축하하는 기념대회가 전국 5000여 명의 간호사와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총 71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였으며, 참여한 간호사 회원들은 “그동안 염원하던 간호법 제정을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타악그룹 고리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1부에서는 오프닝 영상,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기념사, 축하, 시상, 축하퍼포먼스가, 2부에서는 ‘간호법으로 하나 된 우리’를 제목으로 한 퓨전 국악팀 드오(De.O) 공연, 축하 떡 자르기, 대회사, 간호법 제정 원년을 선포하는 축하대회가 열렸으며, 3부에서는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이날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 제정은 때가 무르익어 통과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 낸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은 시대적 필연이자 노력의 열매”라고 축하했다.

조운수 서울특별시간호사회 회장은 간호법 제정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신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항상 회원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2024년 조직문화개선 활동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11월 13일 서울특별시간호사회 5층 강당에서 「2024년 조직문화개선 활동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가 진행됐다. 수상자, 우수작품 발표자를 비롯하여 수상축하자 등 총 33명이 참석했다.

복지위원회 김은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현장에서 조직문화개선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시상식과 발표회를 통해 수상자 기관의 우수 사례 6건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 ◇대상(1명) △김다영(고대안암병원)
- ◇금상(2명) △이은준(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한민영(세브란스병원)
- ◇은상(3명) △김세정(강북삼성병원), △안은주(중앙보훈병원), △편아름(삼성서울병원)



2024년 간호사와 함께하는 엄마아빠의 아기사랑 개최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 동안 서울특별시간호사회(회장 조윤수)는 삼성동 소재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서울국제유아교육전에서 「2024년 간호사와 함께하는 엄마아빠의 아기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행사에 참여하였다. ‘간호와 함께하는 엄마아빠의 아기사랑’은 저 출산 극복과 양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가족 중심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간호사회가 임산부, 영유아 부모 및 조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행사다. 4일 동안 총 636명의 방문객이 참석하였으며 참석한 방문객은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에 감동 받았다. 간호사가 직접 나와서 하는 교육이라 믿음이 간다. 행사에서 가장 의미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를 마친 조윤수 회장은 “서울특별시간호사회가 제공한 작은 노력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감사 메시지를 주심에 감사하다.”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2024년 기자간담회 개최

11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조윤수 회장의 취임 2년을 맞이하여 2023년, 2024년 사업 정책방향, 주요 추진내용을 소개하고 간호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조윤수 회장은 “현 집행부는 간호법 제정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65만명의 간호사들이 고생했고 5만 8000명의 서울시 간호사들이 한 몸이 돼 이를 수 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00년 묵은 간호의 틀을 벗기는 것이 힘들었지만 결국 간호법은 제정됐다. 이제 더 나은 간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바탕을 하위법령에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며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령에 정해졌지만 간호사회가 적극적으로 정책연구에 집중해 더 나은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2024년 동안 시행한 주요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직관리체계강화 ▲간호 발전을 위한 협업 ▲간호정책 역량 강화 활동 ▲회원의 간호역량 강화 ▲간호 전문성 향상 및 지원 활동 ▲전문인으로서의 간호사 이미지 강화 사업 ▲회원 권익옹호 및 복지 활성화 활동 진행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소식



2024년 제2차 법·윤리세미나 개최

11월 26일 서울특별시간호사회 강당에서 2024년 제2차 법·윤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시내 병원 간호관리자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현장에서의 법적·윤리적 딜레마’를 주제로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토의하며 실무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는 사례 중심의 토론으로 시작해, 박미현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오지은 법률사무소 선의 대표 변호사의 강의로 이어졌다. 두 강사는 간호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적·윤리적 딜레마를 법적·윤리적 측면으로 접근하여, 실무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석한 한 간호관리자는 “사례를 중심으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임상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세미나가 자주 개최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앞으로도 간호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4년 서울특별시간호사회 간호돌봄봉사단 「사랑의 김장 나누기」 봉사활동 개최

11월 29일 서울특별시간호사회 간호돌봄봉사단은 구로구청 신관 7층에서 ‘함께하는 나눔’의 일환으로 구로구청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누기’ 활동을 펼쳤다. 이번 ‘사랑의 김장 나누기’ 봉사활동은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조윤수 회장을 비롯하여 전금숙 제2부회장, 이규민 간호봉사단운영위원장 및 간호돌봄봉사단원과 구로구청 직원 5명이 함께했다. 조윤수 회장은 “서울특별시간호사회가 구로구 관내에 있는 만큼 구로구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온기를 계속 전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약 4시간동안 담가진 김장 500kg은 엄의식 구로구 부청장과 전달식을 가진 후 구로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구로구 내 취약계층 100세대에 전달된다. 행사에 참여한 간호돌봄봉사단원들은 “추워지는 연말에 힘든 이웃을 위해 김장을 담가 뜻깊었으며 앞으로도 간호돌봄봉사단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달려가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카카오톡 채널추가



지금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최신 소식, 정보,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세요.



서울특별시간호사회



3초만에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카오톡 열고 QR코드를 찍어보세요

* 채널 추가는 이렇게 하세요!



1. 카카오톡 실행
2. 상단 검색창 터치
3. 검색에서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입력



서울특별시간호사회
Seoul Nurses Association



서울특별시간호사회
Seoul Nurses Association

서울간호는 서울특별시간호사회 회원들이 함께 만드는 회원들의 매거진입니다. www.seoulnurse.or.kr